

14일 Market Index			
↓ 코스피	2348.97	↑ 코스닥	758.05
	(-61.63)		(-30.84)
↓ 금리 (국고채 9년)	3.381	↑ 환율	1311.10
	(-0.054)		(+9.30)

【뉴스】
기업 CEO 초청 간담회
尹 “노동·교육개혁 통해
양질 일자리 창출 지원”
02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4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3월 15일 수요일

“재정준칙 없는 나라 한국 등 몇 곳 안돼”

여야·전문가 ‘재정준칙’ 공방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수개월째 계류돼 있는 가운데, 재정 지출의 유혹에서 벗어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당과, 재정 건전성만 강조하는 정부여당의 논리가 빈약하다는 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고, 재정준칙을 서둘러 도입하자는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부 명예교수와 재정준칙 도입 논리가 부실하다는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의견을 수렴했다.

재정준칙 도입 국가재정법 계류
尹·여당 재정 건전성 위해 필요

김태일 교수 “지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제약하는 것이 합리적”

나원준 교수 “숫자로 못박는 준칙
불평등·양극화 심화, 복지 위축”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길 때 적자 한도를 2%로 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적자재정의 만연화로 인한 역대 최고 수준의 채무 증가폭,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위기 등을 지적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핵심 국정과제였던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해 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재정준칙 컨퍼런스’에 참석해 “최근 수년간 지나친 확장적 재정 운용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지난 5년 사이에 약 62% 늘어나 400조 원 이상 증가해 금년말 약 107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매년 100조원 내외의 대규모 재정적자도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들어 국제 신용평가사는 우리의 재정전망에 대해 경계감을 표시하는 등 이제 더 이상 재정이 우리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재정준칙 도입에 의지를 드러냈다.

박태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공청회’에서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스

이날 공청회에서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세이렌의 유혹(재정 지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묶을 밧줄(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오디세우스가 해협을 통과할 때 세이렌의 유혹 앞에서 자기 몸을 묶었다. 스스로 제약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지 않으면 파국으로 갈 것을 알고 있다”며 “전 세계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국가치고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그 외 몇 나라 없다”고 밝혔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구조적 위기에 놓인 정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교수는 “재정준칙을 엄격하게 지키는 상황에서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때를 놓쳐 인구위기 문제를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채무비율이 좋아도 재정 부양비율이 안 좋아지면서 적신호가 들어올 수 있다”며 “숫자로 못박는 재정준칙은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하고 사교육과 부동산으로 각자도생하는 한국의 사회 및 복지 정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옥동석 인천대 교수에게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고 하는데, 재정도 건전할 때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임진왜란 당시 (울곡 이이의) 10만 양병설 같이 대비해야 하지 않냐는 절박한 학자의 심정으로 재정준칙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다른 국가들이 도입하니 한국 정부도 도입하고,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으면 국가 신용도가 낮아진다는 정부여당의 우려는 논리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2면에 계속〉

/박태출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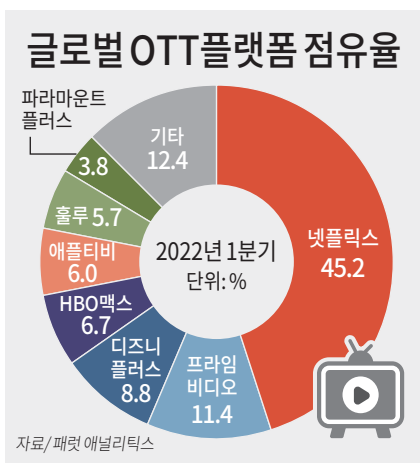
IP확보·구조재편… OTT ‘생존게임’ 시작

경제한파로 OTT시장도 성장둔화
티빙·웨이브 등 MAU 대폭 감소
업계, 구독료 인하 등 이탈막기 총력

‘생존’

지난 2년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는 코로나19 수혜로 2년 만에 1조원을 기록하는 등 급 성장을 이뤄냈다. 하지만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글로벌 경제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OTT시장도 둔화 혹은 정체기를 맞이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투자 시장까지 얼어붙으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OTT업계 사이에서는 올해 목표는 ‘생존’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2021년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초거대 흥행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사와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는 쓴 고통을 겪



은 국내 OTT업계는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업계는 생존을 위해 IP확보와 구조재편을 단행하기 시작했다. 또 히트작을 쫓개 선보이거나 구독료를 낮추는 등 생존을 위한 과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다.

지난 2021년 1505억 달러 수준이었

던 국내 OTT 시장은 연평균 약 26%씩 성장해 오는 2030년에는 1조 2416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시청자 추이 증가세가 둔화를 넘어 정체기를 맞이하기 시작했다. 실제 오징어게임 이후 히트 콘텐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작, 투자비까지 증가하면서 손실폭을 염려하던 제작사들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주요 OTT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하락세를 보였다. 1월 515만 명이던 티빙의 MAU는 2월 475만 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웨이브는 401만 명에서 376만 명으로, 쿠팡플레이도 439만 명에서 401만 명으로 줄었다.

〈4면에 계속〉

/최빛나 기자 vitna@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61.63포인트(2.56%) 내린 2348.97에, 코스닥지수는 30.84포인트(3.91%) 내린 758.05에 장을 마쳤다.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국민은행 스마트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시스

‘SVB 파산’ 불안감… 코스닥 3.9% 폭락

美 증시 약세로 국내증시 부담
외국인 투자자 6394억 팔아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파산 사태 여진이 이어진 가운데 국내 증시가 크게 출렁이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각각 3% 내외 하락했다. 다만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이슈로 변동성은 커졌지만,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과 함께 금융시스템 붕괴로 이어지는 힘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관련기사 3면〉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61.63포인트(2.56%) 하락한 2348.97로 거래를 마감했다. 특히 이날 외국인 투자자는 6394억원을 팔아치우면서 주가를 끌어내렸다. 반면 개인과 기관투자자가 각각 5678억원, 218억원을 순매수했지만 하락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코스닥지수 역시 전장 보다 30.84포인트(3.91%) 떨어진 758.05에 마감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456억원, 2609억원치를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했다.

미국 정부가 SVB파산 사태 이후 해법을 내놔음에도 금융주를 비롯한 미 증시가 약세를 이어가면서, 국내 증시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 증시가 SVB 사태에 대한 미 정부 당국의 해법 발표에도 약세를 보이는 등 여전히 변동성이 확대된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이라며 “한국 증시는 재무제표가 견고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겠지만 재정적으로 불안한 기업들의 매물 출회 가능성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SVB사태의 추가 악화 가능성이 낮다는 글로

벌 금융당국의 언급에도 여전히 해당 사태의 파장이 지속돼 아시아권 투자 심리 악화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미국에서는 SVB에 이어 시그니처뱅크가 폐쇄했으며, 13일(현지시각) 중소 지방은행 리퍼블릭뱅크(FRB), 웨스턴얼라이언스뱅크코프의 주가가 각각 61%, 47% 폭락했다. 여기에 JP모간체이스, 씨티그룹, 모간테이스 등 미국 대형은행의 주가 역시 5% 내외 하락했다.

이에 미 연준이 더 이상의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베이비스텝(0.25%p 인상)에서 동결할 것으로 전망을 수정했다.

/이영석 기자 ysl@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외교부, 호주 핵잠수함 공급에 “역내 평화 협력 지지”
▲ 가공식품 가격 10.4% ↑ … 14년 만에 최대 상승 /사진 뉴스시

▲ 북한,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 공정위, 카카오 SM 인수 후 심사 연내 마무리



▲ 가덕도신공항 육상·해상에 걸쳐 매립식 공법으로 건설 /사진 뉴스시
▲ 강원랜드, 마닐라에 사무소 열어… ‘KLS베리’ 본격 홍보

尹 대통령 “노동·교육개혁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100개 기업 CEO초청 오찬 간담회
근로시간 선택권·유연화 법안에
MZ세대 의견청취·내용보완 지시

“일자리 창출 방해규제 타파하고
AI·바이오 등 미래기술 선제투자”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14일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통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에 고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에 대해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이날 오찬을 통해서도 기업인들과 만나 “최고의 복지는 바로 일자리”라며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을 통해 민간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공로로 인정받은 100개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초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최고경영자(CEO) 초청 오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청해 오찬 겸 간담회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양질의 일자리는 나라에서 재정으로 세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나온다는 것, 기업에서 나온다는 것을 늘 강조했다”며 “우리 정부는 특히 기업 중심, 민간 중심의 시장경제 기조를 강력히 천명하고 실천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세금과 재정으로 직접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에 방해되는 규제를 타파하고, 민간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게 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바이오, 첨단 과학기술 등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를, 기업에게는 생산성과 경쟁력을 증대시켜 주기 위한 것”이라

며 “이 역시 투자가 활성화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더욱 많이 창출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육개혁은, 기업에는 생산성과 경쟁력 증대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제대로 공급하고, 미래세대에게는 지속적인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지식과 경쟁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교육개혁 역시 기업에는 투자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하고, 미래세대에게는 이러한 기업 수요에 충

족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게 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가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을 통해 구조적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지금 매우 중요하다”며 “경제성장이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업의 성장이고, 기업의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 투자를 통해 일자리가 더욱 늘어나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는 것이 바로 우리 경제의 성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과 원팀으로 수출 증진에 힘써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높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첨단 과학기술, 스타트업 그리고 새롭고 참신한 가치 창출을 만들어내는 스타트업의 육성에도 적극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오찬에는 지난해 일자리를 많이 만든 공로로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중소기업 93개사(社)와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기업 7개사 등 총 100개 기업이 참석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노조 10곳 중 3곳, 재정보고 거부 ‘과태료’

고용부, 내달 중순 현장조사 착수
조사 거부·방해해도 과태료 부과

노동조합 10곳 중 3곳이 정부에 재정 관련 보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야 하는 신세가 됐다. 정부는 4월 중순부터 전국 노조 대상 현장 조사도 착수한다. 노조가 현장 조사 거부 또는 방해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폭행·협박 등을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노조가 86곳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부는 15일부터 노조법 위반으로 해당 노조에 과태료 부과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대상 노조는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334곳 중 지난 2021년 이후 해산 신고된 15곳을 제외한 319곳이었다. 이 가운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노조는 86곳(26.9%)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증빙자료로 비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표지 1장과 장부

내용 중에 부담이 없는 속지 1장을 제출하라고 했다.

그 결과, 제출 시한까지 정부에 자료를 제출한 노조는 120곳(36.7%)에 불과했다. 대다수 노조인 207곳(63.3%)은 표지만 제출하거나 자료 자체를 아예 내지 않았다.

이후, 고용부는 보완 의사 확인 등을 거쳐 132곳에 시정기간 14일을 줬다. 최종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노조는 233곳(73.1%)이었다. 나머지 86곳(26.9%)은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상급단체별로 보면 민주노총 점검 대상 64곳 가운데 자료를 제출한 곳은 23곳(37.1%)에 그쳤다. 한국노총도 178곳 중 141곳(79.1%)만 제출을 완료했다.

이는 양대노총이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란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는 시정기간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86곳 노조에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할 계획이다.

오는 15일부터 5개 노조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4월 초까지 사전 통지를 끝낸다.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이후에는 10일간의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해당 노조에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 1면 ‘재정준칙 없는 나라’서 계속

“따라하기식 준칙 도입 정부 여당 논리 빈약”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재정의 건전성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면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기술자라면 누구든지 쉽게 달성할 수 있는 현금주의적인 재정준칙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일 교수는 “국민연금 적립금이 900조원 흑자인데, 왜 지금 연금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마찬가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다른 나라의 비해 국가채무비율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위험하니까 안전장치를 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한국의 미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안동

안동! 유네스코 세계유산
3대 카테고리 보유 최초 도시



2022년 11월 인류무형문화유산
한국의 탈춤 '하회별신굿탈놀이'

특화은행 리스크 부각… 금융당국 ‘신규 플레이어’ 변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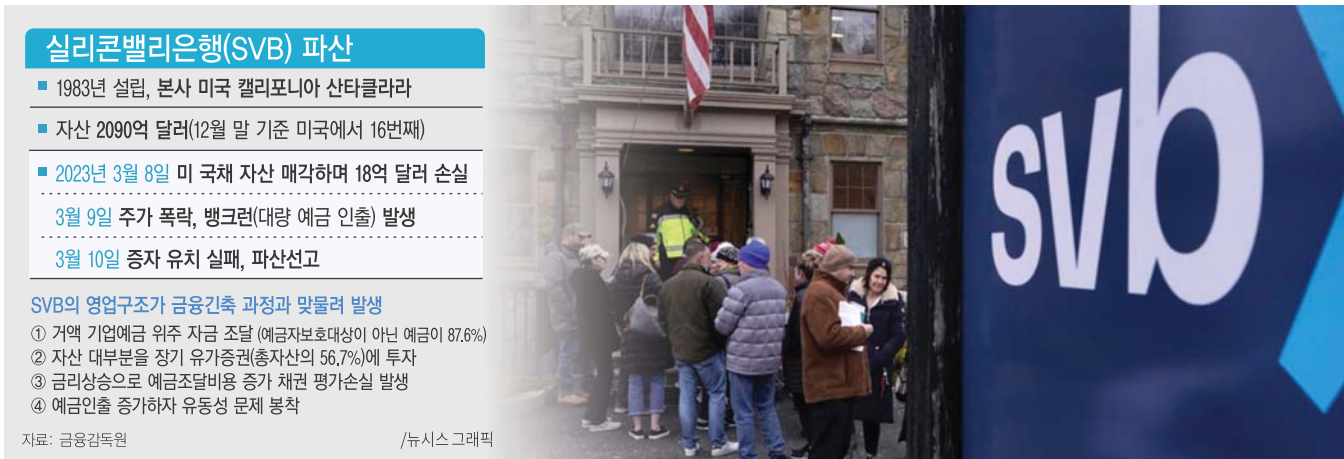
특화은행 건전성 우려 커져
‘충청지방은행’ 좌초 가능성
“리스크 관리 강화 우선 돼야”

미국 실리콘밸리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던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면서 ‘특화은행’과 충청지역 지방은행 설립에 제동이 걸렸다.

지방은행 설립 모델이 최근 연이어 파산한 SVB 등 미국의 특화은행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리스크 관리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은행 경쟁 촉진을 위한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은행이 수행 중인 업무범위를 세분화해 특화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하지만 최근 미국 은행의 파산 사태로 사실상 특화은행 도입이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2일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파산한 미국 SVB가 벤치마킹을 할 만한 주요 해외 사례 중 하나로 언급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SVB가 별도 인가를 받



은 특화은행은 아니지만 사실상 고위험 벤처기업만을 고객으로 상대한다는 점에서 특화은행으로 구분했다. 그러나 모범사례로 꼽힌 SVB가 정책금리 인상을 못견디고 파산하면서 당분간 금융당국이 특화은행을 추진하기에는 부담이다.

이에 따라 TF에서도 SVB파산 사태를 계기로 소규모 특화은행의 선부른 도입보다는 리스크 관리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특화은행의 경우 정확한 신용평가에 대한 어려움으로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SVB 사태로 특

화은행 도입은 은행 경쟁 촉진 방안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SVB사태로 특화은행의 건전성 우려가 커져 이를 국내에 도입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며 “당국에서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선불리 추진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해외 특화은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중은행보다 자본금 규제 등이 완화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특정 산업이 무너지면 특화은행도 동반 파산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턱이 높아지면 수익성이나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생길

수 있어 실제 도입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또한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충청권 지방은행 또한 SVB를 모델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달 22일 ‘제1차 은행설립 추진위원회 및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SVB 모델을 차용한 ‘한국벤처투자은행(가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SVB가 파산하면서 정부가 충청은행의 설립을 늦출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한 기존에 대전기업금융중심은행과 충청 지방은행이 분리 설립될 계획이었지만, 최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충청금융지주’ 설립 계획에 따라 두 은행을 하나로 묶어 설립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윤창현 의원실은 대전기업금융중심은행이 향후 충청권 지방은행의 업무를 흡수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전기업금융중심은행이 몸집을 불리며 결국 충청권 지방은행의 일반 업무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1월 미국 출장 중 SVB를 방문해 대전투자청·은행에 대한 자본출자 및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만간 정식 제안서를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SVB 파산으로 향후 일정은 불투명해졌다.

금융당국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우려를 적극 반영해 대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빚어졌다고 투자은행(IB)을 없앨 수는 없었다”며 “시중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한국벤처투자 “SVB 주식 미보유, 모태·자펀드 직접적 영향 없어”

일부 수탁사 활용… 예보 이내 예치
“자펀드 투자기업 실시간 모니터링”

중기부, 국내 스타트업 점검
“아직까지 확인된 피해 없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파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와 한국벤처투자가 출자한 글로벌 자펀드는 SVB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83년 세워진 SVB는 미국 실리콘밸리 지역을 중심으로 스타트업에게 융자 및 투자, 벤처캐피탈(VC) 펀드의 수탁·출자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회사로 88년 당시 나스닥에 상장한 바 있다.

14일 한국벤처투자에 따르면 SVB는 모태펀드와 직접 거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벤처투자가 출자한 글로벌 자펀드 일부만이 SVB를 수탁사로 활용했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자펀드 대부분이 예금보험한도 이내에서 예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벤처투자 관계자는 “이번 SVB 파산 사태가 한국벤처투자 출자 글로벌 자펀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다만 글로벌 자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피해 사항은 추가 확인중이며 관련 부처와 적극 대응해 피

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도 스타트업계의 SVB 관련 영향에 대해 VC 등을 통해 종합적인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협회들을 통해서 SVB와 거래해 손해를 볼 만한 스타트업들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파악된 건 없다”고 말했다.

VC업계와 스타트업 관련 협회와 단체들에서도 이와 별개로 미국 기반 국내 스타트업들의 SVB 이용 여부와 예치 규모,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조사를 진

행중이다.

SVB 파산이 국내에 있는 스타트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시각이다.

미국 정부의 ‘지급약속’에 스타트업들의 예금도 포함돼 있고, 보험 한도와 관계없이 전액 보증키로 하면서다. 현재 SVB에 요청하면 모든 예금액을 즉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SVB 파산이 가뜰이나 하락하고 있는 투자시장의 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란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스타트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적겠지만 미국의 벤처투자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내에까지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한다”면서 “국내 VC가 해외 벤처기업,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도 투자 대상 스타트업의 거래은행 분산 등 위험관리 강화가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스타트업 민관 협력 네트워크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따르면 지난 2월 스타트업 총 투자 건수는 92건, 투자금은 2952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의 경우 투자 건수 140건과 비교하면 48건이나 줄어든 수치다. 특히 투자금액은 지난해 2월의 1조1916억 원에 비해 75.2%가 감소하는 크게 위축됐다.

/김승호 기자 bada@

추경호 “금융기관 합동점검 체제 가동… 필요시 시장 개입”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경각심 갖고 상황 예의주시 할 것”

정부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관련 필요시 안정 조치 등 시장 개입 여부를 시사했다.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 회의에서 “현재 사태의 여파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는 높은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SVB 사태와 관련한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미 재무부·연방준비제도(Fed) 등의 주요 조치사항을 점검

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SVB 사태를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고강도 금융 긴축이 지속되면서 취약 부문의 금융 불안이 불거져 나온 경우로 보고 있다.

추 부총리는 국내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국제 시장은 전자산 선호가 강하고, 글로벌 긴축 전망이 악화하면서 국제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미국 등의 대응 조치 이후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코스피만 아니라 벤처기업이 다수인 코스닥도 소폭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금융기관은 자산·부채 구조가 SVB와 상이하고 유동성이 양호해

일시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기초 체력을 가지고 있다”며 “국내 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 및 4대 공적연금, 한국투자공사, 우정사업본부 등 투자기관 등의 관련 은행에 대한 투자 위험 규모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 체계를 24시간 가동해 국내외 시장 상황을 실시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금융 시스템 전반의 취약 요인을 지속 점검·보완하겠다”며 “필요시 관계기관 공조 하에 신속히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추 부총리는 “현 단계에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세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계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아직 통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금융시스템 불안 요인까지 겹치면서 향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와 관계기관은 한시 긴장의 끈도 놓치지 않고 당면한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 유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 포함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이승현 한국은행 부총재,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 경제·금융 수장 등이 참석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두 달 새 15만대 판매… 현대차, 인도시장 공략 악셀 밟는다

中-러 판매부진 대체 시장 떠올라
대규모 투자 현지 생산 시설 확충
인도 GM 탈레가온 공장 인수 추진
연간 최대 90만대 자동차 생산
상반기 ‘올 뉴 베르나’ 출시 기대

현대자동차그룹이 세계 최대 신흥 자동차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도 공략에 속도를 높인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인도 시장에서 두 달만에 15만대 판매하며 전년 대비 20%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현지 생산 시설을 확대 하는 등 현지화에 힘을 싣고 있는 모습이다.

14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인도시장에서 올해 2월까지 누적 판매 대수 15만341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19.8% 증가한 수치다. 시장 점유율은 브랜드별로 현대차 13.9%, 기아 7.3%로 21.2%를 기록해 현대차그룹은 마루티(43.7%)에 이어 2위를 유지했다.

특히 인도 시장은 현대차그룹이 글로벌 사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다. 인도는 중국과 러시아 판매가 부진한 가운데 새로운 수출 핵심 지역으로



현대차 직원들이 인도 첸나이 공장에서 자동차를 조립하고 있다.

급부상하고 있다. 실제 중국에선 현지 기업들에 밀려 수 년간 점유율 1% 안팎으로 고전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러-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공장 중단이 장기화하고 있다. 러시아 공장은 카자흐스탄 자동차 기업에 매각을 추진 중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인도는 올해는 미국과 한국에 이어 단일 국가로는 판매 3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현대

차그룹은 현대차 55만2511대, 기아 25만4556대 등 80만대 이상을 판매하며 연간 판매량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대차그룹은 인도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지난해 글로벌 생산 3위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도 인도에서 87만 6000대를 판매해 신기록 경신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 1~2월 두 달 만에 15만대 이상을 팔며 연간 목표치 달성에 청

신호를 켜다.

현지 분위기도 긍정적이다. 현지 매체들은 현대차그룹이 새롭게 출시할 차종을 발 빠르게 소개할 만큼 관심이 커졌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현지 생산 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다.

현대차 인도법인은 13일 제너럴모터스(GM)의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탈

레가온 공장 인수와 관련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텀시트’(주요 거래 조건서·term sheet)에 서명했다. 현대차가 인도에서 외국기업 공장 인수를 추진한 것은 1996년 현지 진출 이후 처음이다.

현대차는 지난 1998년 남부 첸나이에 제1공장을 설립했다. 2008년 첸나이 제2공장을 설립하고, 연간 76만대 규모의 생산 시설을 갖췄다. 연간 13만대 규모의 GM 탈레가온 공장 인수를 완료하면 현대차는 연간 최대 90만대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현대차의 인도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는 현지 생산 설비 증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덕분에 현대차가 올 상반기 인도 시장 공략을 위해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올 뉴 베르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현대차는 현지 생산을 토대로 4월 중 본격적인 판매를 통해 현지 세단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공장 최종 인수를 위해서는 정부 당국의 행정절차 및 협약 당사자 상호 간 각종 필요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성원 기자 ysw@metroseoul.co.kr

대학 졸업생만 1200만명… 고용위기 공지 몰려

● 차이나 뉴스&리포트

고용 우선 전략 전면 시행 강조
올 일자리 창출 1200만개 목표

중국이 높은 실업률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매년 새로 나오는 대학 졸업자만 1200만명에 달하지만 일자리는 부족하고,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의 해법인 경제 성장도 지지부진한 탓이다.

신임 리창 중국 총리는 지난 13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용은 민생의 근본이며, 원칙적으로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경제 성장에 달려 있다”며 “고용 우선 전략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고용 안정 및 확장을 위

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새로운 고용 형태의 발전을 지원하고 표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이 올해 목표로 제시한 일자리 창출 규모는 1200만개다.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약 5%’로 역대 최저치로 낮춰잡은 것과 달리 일자리 목표는 오히려 더 높였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을 제외하고 지난 5년간 평균 일자리 목표치는 1100만명이었다.

프랑스 투자은행(IB) 나티시스알리시아 가르시아 에레로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고용 목표의 상향은 고용 시장, 특히 청년실업률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반영한다’며 “고용 창출은 일반적으로 더 강력한 경제 성장에 달려있다는 점

에서 현재 성장률 목표치로는 달성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입장에서 낮은 눈높이마저 쉬운 숙제는 아니다.

리 총리는 “현재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이미 120조위안을 넘어섰고, 많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경제 규모가 커진) 이런 상황에서 5% 안팎인 올해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2019년의 공식 수치에 따르면 중국 GDP 성장률 1%당 새로 만들어진 도시 일자리 수는 약 200만개에 머물고 있다. 그간 경제성장률 목표를 6% 이상으로 잡았던 것도 고용을 유지하기 위

해서였다.

중국에서 고용의 80% 이상을 맡아온 민간 부문 역시 침체됐다. 당국이 ‘무질서한 확장’을 막겠다는 이유로 규제를 대폭 강화한 데다 팬데믹 여파까지 겹치면서다.

올해 신규 대졸자는 1158만명이다. 작년보다 82만명 증가한 수치로 다시한 번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리 총리 역시 “급증하는 대졸자가 확실히 고용에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앞으로 채용 채널을 더욱 확대하고, 특히 청년들이 노력을 통해 개인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2월에 중국의 16~24세 청년 실업률은 16.7%다. 작년 7월 거의 20%에



리창 중국 총리가 지난 1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 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신화·뉴스

달했음을 감안하면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전 연령대 실업률(5.5%)을 크게 웃돈다.

/안상미 기자 smahn1@

국내 OTT, 뒤늦은 정부 지원… 시장 속도 따라가기 벅차

》1면 ‘IP확보·구조재편’서 계속

넷플릭스는 1258만 명에서 1151만 명으로 줄었다. MAU가 감소하고 있다는 건 신규 유입 뿐만 아니라 이탈 고객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글로벌 업체는 콘텐츠의 공백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나섰다.

넷플릭스는 ‘더 글로리 시즌 1’을 지난 12월 30일 공개하면서 1월 인기를 끌었고 시즌 2를 지난 10일 공개했다. 공백기간이 한달 남짓 있었지만 그 사이에 ‘나는 신이다’, ‘신성한 이혼’ 등 굵직한 콘텐츠들을 선보이며 구독자들을 지

켜냈다. 디즈니플러스의 카지도노 순차 공개 전략을 구사했다.

국내 OTT 기업들은 이를 쉽게 따라가지 못하는 모양새다.

OTT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OTT업체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임계치를 넘어야 하는데 쉽지 않다. 손실과 투자비 증가 없이 이용자들을 유입시켜야 하는데 히트 콘텐츠가 없다. 투자 시장도 열려붙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콘텐츠 투자비가 수익성 개선과 비례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티빙은 콘텐츠 투자보단 인터페이스·경험(UI·UX) 개선에만 집중하고 있다. 웨이브는 ‘선택과 집중’만 외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국내 OTT가 해외에 진출하는 첫 해로 규정하고 맞춤형 지원을 약속했다.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인공지능(AI)·디지털 융합을 위해 184억 원을 지원하는 게 고작이다.

정부의 뒤늦은 지원이 시장 속도를 둔화시켰다는 지적이다.

관계자는 “2020년 OTT 붐이 일었을 때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던 정부가 이제와서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이라며 “정부의 뒤늦은 지원이 오히려 OTT 시장 속도를 둔화시켰다. 국내 OTT업계는 사업을 그만두거나 투자하기도 어려운 계류의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환율 급등에 지난달 수입물가 2.1% ↑

한은, 3개월 만에 상승 전환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수입물가가 3개월만에 상승했다.

수입물가는 약 한달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소비자물가 둔화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23년 2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138.03으로 전월 대비 2.1% 올랐다.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수입물가지수는 국제유가와 환율이 오르며 상승했다.

한국으로 수입하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월평균 가격은 지난달 배럴당 82.11달러로, 지난 1월(80.42)보다 2.1% 올랐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월 평균 1242.25에서 지난달 평균 1270.74원으로 1.9% 상승했다. 통상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물가가 상승하고, 이후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를 올린다.

수입물가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3월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둔화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오후 2:05

[Web발신]
 [OO보건소] 031-XXX-XXXX
 영유아를 위한 이유식 특강 안내드립니다
 시간 : 10월 5일 수요일 19:00~20:30
 장소 : 보건소 2층 대강당
 선착순 참여로 참석 여부 회신주세요

오후 2:06

네. 아이 동반도 가능합니다

수원특례시
민원접수

오후 2:06

아이와 함께 참석이 가능할까요?

오후 2:07

네~ 참석할게요



더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원하신다면?

★ 양방향 문자 하나면 쓰던 사무실 번호로
 고객과 소통을 더 편리하게!

문자도 사진도 실시간으로 주고 받고, 받은 답변은 알아서 데이터로 정리까지!
 이제, 사용하던 사무실 번호 그대로 손쉽게 문자업무 하세요

메시징DX
 양방향 문자 서비스



양방향 문자 | kt enterprise
 KT 화선 사용자 대상 서비스입니다.



문의처 080-258-0303
 enterprise.kt.com

수원특례시 포함 100여개 지자체 및 기업 도입 중 (2022.09.30일자 기준)

DIGICO KT

민주당, 계파 갈등해소 구슬땀… 비명계 공천TF 대거 합류

총선공천제도TF 1차 회의 개최
11명 중 9명 비이재명계 인사 분류
李 대표 “투명한 공천시스템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총선공천제도 TF 제1차 회의를 열고 22대 총선 승리를 위한 공정한 공천제도 수립 논의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TF 구성엔 친(親)이재명계로 구성된 당 지도부와 달리, 비(非)이재명계 의원들이 대거 합류해 눈길을 끌고 있다.

TF는 당내 계파인 이낙연계와 정세균계를 끌고루 등용한 탕평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TF에서 친이재명계를 최대한 배제하면서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는 공천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총 11명의 TF 의원 중에서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은 문진석 의원과 조직사무부총장을 맡은 이해식 의원을 제외한 9명이 비이재명계로 분류된다.

단장인 이개호 의원은 지난 20대 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 총선 공천제도TF 제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선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도왔고,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정태호 부단장도 지난 대선 때 이 전 대표를 도왔다. 김영배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 체제 아래서 정무실장을 맡았고, 배재정 전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가 국무총리였을 때 비서실장이었다.

지난 대선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캠프 대변인이었던 조승래 의원과 정 전 총리 캠프에서 일했던 송옥주 의원

도 합류했다. 고영인 의원은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하며 이재명 대표의 당선을 우려했던 인물이며 이소영 의원도 지난 전당대회에서 비이재명계 97세대(90년대 학번, 70년대 생) 주자로 나온 강훈식 의원을 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는 TF 회의 모두 발언에서 “민주주의 정치에 있어서 대표를 선출하는 일은 가장 핵심적인 정치과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중에 민주주의의

한 세력을 대표하는 정당 내에서 공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 내에서 누구나 수긍하는 합리적인, 그리고 투명한 공천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개호 TF 단장은 “총선 승리를 이루기 위해선 공천 기준을 ‘경쟁력’에 뒤야

한다”며 “민주당의 모든 후보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당 결집력을 높이고 총선 승리의 주춧돌을 놓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TF 회의를 마친 후 이날 열리는 비이재명계 모임인 ‘민주당의 길’ 토론회에서 의견을 수렴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당내 의견은 때와 장소가릴 것 없이 많이 들어야 한다”며 비이재명계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에도 민주당 현역 의원 50명이 모인 최대 모임 ‘더좋은미래’와 비공개 회동을 하며 당 안팎 현안과 당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더좋은미래의 대표인 강훈식 의원은 전날(13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에 거취 문제에 대해 “(그것에) 방점을 두는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해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흐르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김기현, ‘연포탕’ 행보 지속… 내홍 수습 속도

〈국민의힘 당대표〉

〈연대·포용·탕평〉

안철수, 황교안 등 당권 경쟁자 회동
일부 최고의원 이준석계 배척 ‘불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당권 경쟁자였던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만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원팀’ 행보에 공감했다. 안철수 의원과 회동에 이어 황 전 대표까지 만나 ‘연포탕’(연대·포용·탕평) 행보를 이어가는 중이다. 다만, 일부 최고위원들은 이준석 전 대표 측을 배척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윤(非윤석열)계에 대해선 갈라치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기현 대표는 14일 낮 12시부터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황교안 전 대표와 1시간가량 오찬 회동을 했다. 오찬 회동은 김 대표가 황 전 대표에게 직접 제안한 뒤 성사됐다.

황 전 대표는 전당대회 패배 이후 부정 경선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경선 과정에서 ‘땅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뒤 김 대표 사퇴까지 요구했다. 김 대표는 황 전 대표의 행보와 별개로 ‘연포탕’(연대·포용·탕평) 정신으로 품고 가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황교안 전 당 대표와 오찬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려는 모습이다.

황 전 대표와 오찬 회동을 마친 뒤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며 “앞으로 우리 당이 어떻게 잘하면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 서로 많은 공감을 나눴다”고 했다. 황 전 대표가 제기했던 의혹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고 김 대표는 전했다.

황 전 대표 역시 오찬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가 새로 세워졌으니 당이 정상화되고 다시 일어나는 시간 필요하다”며 분위기가 달라진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오찬 회동에서는 ▲민생 ▲경제 ▲일자리 ▲집값 ▲세금 등 현안에 대한 확실한 성과를 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데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다툰이 컸던 이준석 전 대표 측과 화해 가능성도 열어뒀다. 기자들과 만난 김 대표는 ‘연포탕 내에 이준석 전 대표 자리가 있는지’ 문자 “특정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특정인을 말해야 하냐고 되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내년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데 공감한다면 민주당 인사라고 해도 큰 틀에서 대통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 측은 이 전 대표 측 인사인 천하람 전남 순천갑당협위원장과 회동 여부에 대해 “계속 연락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이준석계 인사를 배척하는 모습이다. 이준석계도 당 지도부의 태도에 대해 불편한 기색이다. 김 대표의 입장과 다르게 양측이 통합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尹 대통령 “주69시간 근로 개편안 재검토”

대통령실 MZ세대 등 대국민 소통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9시간 근무를 골자로 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개편안)’에 대한 보완·검토를 지시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1주 단위’로 된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해 집중근로가 필요

할 경우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당 최대 69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등의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이 장관은 개편안을 발표하며 “MZ세대는 권리의식이 굉장히 높아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연장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발표 이후 각계에서 비판과 우려가 확산했고 ‘MZ 노조’ 모임인 새고침노동자협의회도 정부 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이번 지시와 관련,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MZ세대 노조와 IT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여는 한편, 현장 방문과 간담회도 가질 계획이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김기현 지도부, 19일 첫 고위당정협의회

당정, ‘원팀’ 체제 본격화… 한일관계·가뭄대책 등 논의 예정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이 오는 1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한일 정상회담 성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고위 당정협의회는 김기현 국민의힘 지도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다.

1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고위당정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한화진 환경부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김대기 비서실장과 국정기획·정무·홍보·경제·시민사회수석,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함께한다.

이번 고위당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 초청으로 16~17일 1박 2일간 일본에 방문한 뒤 열리는 만큼 ▲한일

정상회담 성과 및 향후 계획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방안 등과 함께 최근 남부지역 가뭄 대책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당정은 김기현 지도부 출범 이후 원팀으로 활동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당 지도부와 만찬에서 김 대표와 매월 2차례 정기 회동을 약속했다. 김 대표는 같은 날 한덕수 총리와 만나 유기적인 당정 관계 수립을 약속했다. /최영훈 기자

대통령실 “尹 대통령 訪日, 양국 악순환 끊을 것”

대통령실은 오는 16일과 17일, 양일간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의 정상회담 등이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과 관련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본격적인 교류 여건을 다시 정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12년간 중단된 양자 정상방문이 재개되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한 한일관계 개선의 중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국의 방문 외교는 2011년 10월 당시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방한, 12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 이후 12년 만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박2일 일본 방문 세부 일정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김 실장은 “경제협력을 가로막는 정책과 장벽을 해소하고 양국 협력을 심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정상회담과 만찬으로 상호 개인적 신뢰를 다지면서 양국 관계 발전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정익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우수상
에브리틱 팀 윤준성 김용운 양정구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창업 지원도 취업 지원도
하나금융그룹이 함께합니다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바로가기

하나금융그룹 ESG 캠페인



.....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하나금융그룹과 고용노동부 그리고 전국 협력 대학이 함께
지역 청년들의 차별 없는 창업과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하나금융그룹

“SVB 사태에 벤처社 자금난 우려… 모험자본 공급 강화”

금융당국, 금융데이터 정책 방향

마이데이터 정보전송 품질 제고
지속가능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상품 비교·추천 범위 확대 필요
금융·비금융 데이터 공유 확대
핀테크·벤처 원스톱 컨설팅 지원

금융당국이 국내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14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금융감독원과 빅테크 및 핀테크, 금융회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초거대 인공지능(AI) 시대, 데이터 기반의 혁신·경쟁을 위한 금융데이터 정책 방향’ 간담회에서 “글로벌 긴축기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영업정지 사태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벤처 등 신산업·혁신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국내 핀테크 기업들이 어려운 사업환경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빅테크·의료 정보 등 핵심 비금융정보의 개방 ▲금융상품 비교·추천 범위 대폭 확대 ▲결



14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가운데) 주재로 초거대 AI시대, 데이터 기반의 지속적 혁신 경쟁을 위한 현장간담회가 열렸다. /금융위원회

합데이터 재활용 ▲개인사업자 공공데이터 개방 ▲신뢰받는 AI 활용 환경 구축 등 데이터 정책 전반에 대한 금융회사, 빅테크·핀테크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우선 빅테크·의료 정보 등 핵심 비금융정보 개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속가능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축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금융 이외 전(全)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정보제공기관의

정보전송 오류 감축 등 마이데이터 품질을 제고하고, 합리적 과금 체계를 마련해 지속가능한 상생·협력의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보다 국민의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험·펀드 등으로 금융상품 비교·추천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데이터 결합시 시간·비용적

측면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결합 데이터를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개인사업자 공공데이터 개방도 논의됐다. 비금융전문 신용평가(CB), 개인사업자 CB가 금융이력부족자, 소상공인 등에 대해 보다 정교한 신용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국제청·통계청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확대 개방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 상임위원은 “기존 금융서비스의 대안으로서 등장한 마이데이터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해 나가고, 데이터의 개방·공유를 통해 고액자산가의 전유물이었던 PB서비스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데이터 관련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하고 금융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혁신해 나가고, 금융·비금융 데이터의 개방·공유·결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창업 원스톱 컨설팅

아울러 글로벌 긴축기조, 미 SVB 영업정지 사태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벤처 등 신산업·혁신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내 핀테크 기업들이 여러박빙(如履薄氷·살얼음을 밟는 것과 같다)의 어려운 사업환경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창업·성장단계별 자금 공급 및 법률·회계·기술 등 원스톱(One-Stop)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을 적극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우리경제의 신성장 동력 발굴지원, 글로벌 유니콘 벤처육성 등을 위해 대규모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건전한 모험자본 생태계를 육성을 제시했다.

김병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금융 데이터의 안전한 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데이터 관리·보호절차 표준화, 가명·익명정보 적정성 평가 기준 정비 등을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4%대 고금리 예금 막차 타볼까… 중소형 저축은행 발길

조흥 年 4.5%, 오성 年 4.3% 제공
“당국 모니터링으로 건전성 양호”

중소형저축은행이 연 4% 중반의 금리로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다. 이달 들어 대부분의 저축은행 예금금리가 한 달 새 연 3% 선으로 떨어졌지만 일부 중소형사는 연 4% 중반대의 금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퇴자와 자산가가 중소형 저축은행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4%대 금리를 주는 막차에 올라타기 위해서다.

14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79곳 저축은행의 평균 예금금리(12개월)는 연 3.74%다. 지난달 초(연 4.62%) 대비 0.88%포인트(p) 하락했다. 이달 시중은행이 예금금리를 내리면서 저축은행의 자금 수신 속도에도 제동이 걸린 셈이다.

일부에선 고금리 전성시대가 끝났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저축은행 업계에선 연 6.5% 수준의 고금리 예금상품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저축은행이 예금금리를



중소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연 4%가 넘는 예금 상품이 등장하고 있다. /뉴스시스

3%대로 내렸지만 중소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연 4% 중반대의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 기준 매년 190만원의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5000만원 이상의 목돈이 있다면 고금리 상품에 분산해 투자할 수 있다.

저축은행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책정한 예금 상품은 조흥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이다. 연 4.5%의 금리를 제공한다. 이어 오성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연 4.3%), 대명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연 4.25%) 순이다. 대원, 한성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은 연 4.2%를 지급한다.

지난해 인기가 시들해진 3년물 예금 상품도 눈여겨 볼만하다. 저축은행 금리가 하락세에 접어들었을 때 중장기 예금에 가입해 두는 것도 재테크 방법이다. 특히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회전식 정기예금’보다는 일반 정기 예금이 바람직하다.

3년물 예금 상품은 아산저축은행의 정기예금, 오투저축은행의 비대면 정기예금 등이 연 3.9%의 금리를 제공한다. 동양, 오투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은 연 3.8%의 금리를 제공한다.

중소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고금리 예금 상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저

축은행이 익숙지 않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떡튀’, ‘파산’ 등 부정적인 인식도 여전하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이후 대형사를 중심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있지만 중소형사에 대해선 여전히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 업계는 지나친 우려라고 지적한다. 부실사태 이후 건전성이 양호해졌다는 것.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매주 저축은행 79곳에 대한 건전성을 점검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전국 저축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은 12.87%로 2021년 동기(14.61%) 대비 1.74%p 감소했다.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서는 자산 1조 이상 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8%, 자산 1조 미만 저축은행은 7%를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저축은행권에 악재가 겹치면서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했다”면서 “금융당국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만큼 건전성은 양호한 편”이라고 말했다.

/김정선기자 kimsan119@



신한은행 ‘신한 쏘’ 이체 등 450개 업무 AI 음성뱅킹 서비스

신한은행이 ‘인공지능(AI) 음성뱅킹’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AI 음성뱅킹’은 신한 쏘(SOL) 로그인 후 우측 상단 마이크 아이콘을 눌러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업무 내용 음성 지시를 통해 ▲메뉴 이동 ▲거래 내역 조회 ▲계좌 이체 ▲대출 상품 안내 ▲다 빈도 질문에 대한 설명 등 450여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신한은행 ‘AI 음성뱅킹’은 고객이 일상적인 언어로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업무 처리에 해당되는 서비스·기능을 찾아 자동 실행해준다. 여기에는 챗봇·전화상담 2000만 건 중 유효데이터 8만 건을 분리해 고객 사용 단어들을 분석한 ‘자연어 이해 시스템’이 기반이 됐다.

신한은행은 ‘AI 음성뱅킹’ 서비스를 지속 발전시켜 ‘대화형 AI’ 서비스로 구현하고 언제 어디서든 고객 필요에 맞게 모든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인비저블 뱅크(Invisible Bank)’의 핵심 채널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터치 기반의 모바일 뱅킹을 넘어 음성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차원의 편리함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금융 편의성을 높이고 고객의 일상에 스며드는 금융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미성년 자녀 금융거래 쉽게 하세요”

KB국민銀 스타뱅킹 앱
‘맘 편한 아이금융’ 오픈

KB국민은행이 KB스타뱅킹 앱에 ‘맘 편한 아이금융’을 오픈했다고 14일 밝혔다.

‘맘 편한 아이금융’은 부모가 편리하게 미성년 자녀의 금융거래를 이용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성 콘텐츠를 제공한다.

KB스타뱅킹을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미성년 고객의 금융거래 시 필요한 서류 안내부터 추천 상품, 주요 혜택, 편리한 은행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주요 서비스내용으로는 ▲미성년자녀 계좌 개설 시 필요 서류 안내 ▲모바일번호표 발급 등 편리한 은행 이용 팁 소개 ▲가족단위로 거래실적을 합산해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KB스타클럽 가족고객 제도’ ▲10대 전용 금융플랫폼 ‘리브넥스트(Next)’ ▲통신비 절약을 위한 ‘리브엠(Liiv M)’ ▲경제·금융 관련 상식 ‘금융자산 증여 관련 정보’ 등이 있다.

또한 KB국민은행은 오는 31일까지

만18세 이하 고객을 대상으로 최초 입출금 통장 개설 시 최대 3만5000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다양한 미성년자 관련 금융 서비스를 고객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오픈했다”며, “앞으로도 미래의 주역인 미성년 고객이 금융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유익한 콘텐츠 제공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현대차 ‘중고차 사업’ 초읽기… 중고차업계 “생존권 위협”

현대차 주총서 사업목적 추가
하반기부터 본격 사업 추진
기아, 중고차 상담직원 채용

중고차업계 “골목상권 침해
모든수단 동원 강력 대응할 것”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올 하반기 국내 중고차 시장 진출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중고차업계가 또다시 반발에 나섰습니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중고차 사업 진출을 진행했지만 생계형 적합업종이라는 장벽에 막혀 1년 미루게 됐다. 당시 중기부는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를 열고 현대차·기아의 중고차시장 진출을 1년 유예해 2023년 5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중고차 업계는 또다시 시장 진출 자체는 감수하지만 ‘골목상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의 한 중고차 시장

14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매매업 골목상권 진출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달 경기 용인의 오토허브 중고차 매매단지에 입주 계약을 맺었다.

현대차가 단독매장이 아닌 중고차업

계가 형성해놓은 상권인 매매단지에 입주하는 것은 중소매매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게 연합회 측 주장이다.

연합회는 “기존 매매단지에 입주하려는 현대차의 행위, 이른바 ‘골목상권’에 진입해 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30만 영세 소상공인 가족의 생존권을

빼앗는 상도덕에 어긋나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부처와 국회가 이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현대차의 불공정 영업행태’를 해결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매매단지 입주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고차 시장의 침체 상황도 중고차업계가 반발하는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금리, 경기 침체 여파로 중고차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중고차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는 해당 매매단지에 입주하는 시설은 중고차 매장이 아닌 진단, 정비, 물류 등 상품화를 위한 시설인 만큼 문제가 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대차는 오는 23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인증 중고차 사업을 위한 정관변경(사업목적 변경 및 추가)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결정에 따라 현대차는 오는 5월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전체 중고차 판매량 중 최대 2.9%를 판매할 수 있다.

다만 현대차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중고차 사업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현대차는 올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경남 양산에 인증 중고차 전용 매매센터를 건설하고 있으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중고차 매매센터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또 업계 최고 수준의 중고차 품질 검사·인증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아는 지난달 17일부터 27일까지 인증 중고차 고객센터 상담직원을 채용했다. 근무지역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 부근이며, 연봉은 3900만원에 성과급은 별도로 지급되는 조건이 제시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하반기에는 인증중고차 사업을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항공기 10대로 확대… 매출 1460억 목표”

이스타항공 재운항 기념 간담회
조중석 대표 “실패를 열정으로 승화”

이스타항공이 3년여 만에 운항을 재개한다. 이스타항공은 올해 안으로 항공기를 10대로 늘리고 이르면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국제선 취항에 나설 계획이다.

이스타항공은 14일 서울 강서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재운항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5개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조중석 이스타항공 대표는 이 자리에서 “실패의 경험을 경쟁력으로 삼아 실패를 열정으로 승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올 1월 사모펀드 운용사 VIG파트너스에 인수되면서 재무구조를 개선했다. VIG파트너스의 1100억원 운영자금 투자로 자본잠식에서 벗어났고 추정 부채비율은 150% 수준으로 낮아지며 ‘비상(飛上)’을 준비하고 있다.

조 대표는 “올해는 200여 명의 추가 채용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과거 이스타항공의 부정 채용에 대해서는 이스타항공 전 임원들이 주도했던 일”이라고



조중석 이스타항공 대표가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스타항공 5개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말했다. 이어 “앞으로의 채용에서는 ‘투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재고용’에 대한 질문에는 “이스타항공에 필요한 인력수요 먼저 판단하고, 희생절차 시절 회사를 나간 직원에게 재입사할 의사가 있는지 문의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재고용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은 정확한 시기를 설정하지 않았지만 “7호가 도입되는 시점에 맞춰서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B737-800 3대를

보유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보유 항공기를 10대로 늘릴 계획이다. 7호기부터는 차세대 항공기 737-8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은 올해 1460억원 매출을 목표로 삼았다. 내년에는 연간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노린다. 이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김포~제주 노선을 운항하고 추가 도입되는 항공기를 지방 공항발 제주 노선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스타항공 측은 “매출 목표 산출 근거는 국제선 운항 노선의 과거 탑승률을 기준으로 운항편수를 계산해서 산출한 것”이라며 “국제선 취항을 위해서는 허가 받아야 할 것들이 많은데 확정적으로 언제 정확히 국제선 취항을 시작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면서도 올해 하반기 7월~9월 중으로 국제선을 띄울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이스타항공 측은 기재 도입 상황과 시장 추이를 살핀 뒤 인천~나리타, 오사카, 후쿠오카 등 일본 노선과 베트남, 동남아 등의 노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스타항공’이라는 기존 사명을 그대로 유지한다.

/허정운 기자 zelkova@

LG전자, 협력사 상생협력펀드 확대 지원

작년보다 금리 감면폭 2배이상 확대
무이자 직접자금 지원도 지속 운영

LG전자가 협력사 금융지원을 확대하며 상생을 더하고 있다.

LG전자는 올해에도 ‘상생협력펀드’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상생협력펀드는 협력사에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주는 정책이다. 2010년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작년부터는 3차 협력사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이어왔다.

올해 LG전자는 시중 4대 은행을 대상으로 입찰을 통해 지난해보다 금리 감면폭을 2배 이상 높이는 데 성공했다.

LG전자 협력사(주)성진일렉트론은 상생협력펀드 특별 감면금리를 적용받아 일반 금리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대출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동준 대표는 “특별 감면금리로 설비투자 비용 부담이 낮아져 경영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협력사에 대한 무이자 직접 자금 지원도 지속하고 있다. 신규 및 자동화 설비투자를 필요로 하는 협력사에 매년 400억 원 규모 자금을 제공해왔다. 또 수출입은행과 함께 ‘해외동반 진출 파트너십’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지난해의 경우 16개 협력사에 해외 동반진출 자금 약 1100억 원을 우대금리로 지원했다. 지원 금액은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LG전자는 협력사가 대금 결제일에 조기 현금화로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생결제시스템도 적극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1차 협력사 150여 곳이 상생결제를 이용했다. LG전자가 1차 협력사에 지급한 대금이 2차 이하 협력사로 전달되는 비율인 상생결제 낙수율은 국내 대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12.7%다. 지난해 LG전자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결제를 지원받은 2·3차 협력사는 1100여 곳에 이른다.

/김재용 기자 juk@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신임대표에 김연섭

일진머티리얼즈 사명 변경 완료

롯데케미칼이 인수한 일진머티리얼즈가 사명을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로 변경하고 김연섭 롯데케미칼 전략기획본부장(CSO·사진)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일진머티리얼즈는 14일 전북 익산 본사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사명 변경 및 대표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김연섭 롯데케미칼 CSO는 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김 대표이사는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범용 동박 제품부터 고강도, 고연신의 고부가제품군까지 다양한 제품과 인업을 구축하고 있는 핵심 기술을 보유



한 미래 성장성이 기대되는 회사”라며, “롯데그룹 화학군의 핵심 자회사로 유럽 및 미국 등 주요 시장 선점을 통해 글로벌 배터

리 소재 선도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동시에 배터리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국내 메이저 동박 생산 기업으로서 지난 2022년 3분기까지 5582억원 매출과 69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국내외 글로벌 배터리 회사와의 장기 공급 계약 등을 맺고 있어 안정적인 현금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졌다. /허정운 기자

한화솔루션,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CTO로 영입

차세대 모듈 개발·연구 속도

한화솔루션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를 글로벌 최고기술책임자(CTO)로 영입한다. 태양광과 풍력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차세대 모듈 제품 개발과 재생에너지 연구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한화솔루션은 다니엘 머펠드 GE리뉴어블에너지 최고기술책임자 겸 부사장(사진)을 큐셀 부문 글로벌 최고기술



책임자로 임명한다고 14일 밝혔다. GE리뉴어블에너지는 미국 GE의 에너지사업 자회사로 풍력과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전기공학을 전공한 그는 1999년 GE 글로벌리서치에 입사한 뒤 GE파워, GE리뉴어블에너지 등에서 근무하며 23년간 태양광, 풍력, 수력 에너지저장장

치(ESS)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 기술개발을 주도했다.

머펠드 CTO는 한국과 미국, 독일 등 한화큐셀의 3개국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 연구개발(R&D) 시너지를 창출하는 임무를 맡는다. 판교와 독일 탈하임 R&D 센터를 연결해 전사 차원에서 기술 로드맵을 강화하는 한편 북미 최대 태양광 통합 생산 단지인 ‘솔라허브’ 가동에 맞춰 기술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양성운 기자

KT ‘대표 선임’, SKT ‘AI전문 사외이사’, LGU+ ‘女 사내이사’

통신사·포털 등 IT기업 주총 돌입
KT, 윤경림 대표 선임 안건 상정
SKT, ‘AI 컴퍼니’ 이사회 재구성
LGU+,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추가

네이버, 이사보수한도 축소 안건
카카오, SM 인수 등 신사업 준비

이동통신사, 포털 등 주요 IT 기업들이 이번 주부터 ‘주주총회 시즌’에 돌입한다. 이들 기업은 이번 주총에서 신규 대표를 선임하거나 인공지능(AI) 등 사업을 도울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엔터기업 인수 후 신사업이나 신용평가사 설립을 위해 정관 변경에 나선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은 대표이사 선임건이나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승인을 받는다.

◆통신사, 사내 및 사외이사 선임 안건 상정

KT는 31일 서울 서초구 태봉로의 KT 연구개발센터에서 개최되는 주총을 통해 윤경림 사장, KT 대표 최종 후보



지난해 3월 25일 열린 SKT 정기 주주총회에서 유영상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SKT

에 대한 대표이사 선임 건을 진행한다. 하지만 윤경림 사장이 대표이사로 선임될 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최근 여론에서 윤 사장이 대표 후보에 오른 것에 대해 “구현도 KT 대표가 윤 사장을 자신의 아바타로 KT 대표이사로 출마시켰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1대 주주인 국민연금도 반대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2대 주주인 현대자동차도 반대표를 행사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SK텔레콤은 28일 서울 중구 SKT 타워 4층 수팩스홀에서 정기 주총을 열고 사외이사 3명의 선임 건 등을 논의한다. SKT는 23일 이사회를 열고 오혜연 카이스트 인공지능 연구원장을 이번 주총에서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고 김용학 연세대 명예교수와 김준모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부교수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하기로 했다.

SKT 관계자는 “오혜연 사외이사 후보는 자연어 처리 기반 AI(인공지능) 전문가로 현재 KAIST 전산학부 교수이자 인공지능 연구원 원장 등을 겸하고 있다”며 “당사의 향후 AI 기술 방향성과 AI 윤리 문제 등에 깊이 있는 조언을 통해 우리 회사가 AI 컴퍼니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LG유플러스는 17일 오전 9시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사옥에서 주총을 개최한다.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추

진을 위한 부칙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는 공정위에서 승인한 3사 합작 신용평가사 설립을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명희 LGG유플러스 CFO(최고재무책임자)의 사내이사 및 윤성수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염윤미 도서문화재단 씨앗 이사의 사외이사 선임 건도 다뤄진다.

◆카카오 SM 인수 준비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들은 이사 보수한도를 축소하는 안건과 카카오는 SM 인수를 위한 준비에 나서 투자·법률 전문가를 이사회에 임명시킨다.

네이버는 22일 경기도 성남 그린팩토리에서 주총을 개최하고 이사 보수한도를 15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축소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또 현재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변대규 휴맥스홀딩스 회장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도 의결한다.

카카오는 28일 제주도 본사에서 주총을 개최하고 이사 보수한도를 12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축소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또 대표이사 퇴직금 지급률을 3배

수로 정하고 대표이사에게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5만 주를 부여하도록 한 안건도 상정돼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해 임기 중인 이사가 주총 해임 결의로 퇴임한 경우, 회사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거나 회사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힐 경우, 직무 관련 벌금 이상 형을 받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사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을 제한하는 ‘퇴직금 지급 제한 규정’도 신설한다.

카카오는 또 정관 변경을 통한 사업 목적 추가와 배제한 투자총괄대표(CIO) 사내이사 신규 선임 등 안건을 상정한다. 특히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신규 사업 목적으로 정관에 추가하는데, 이는 SM엔터 인수한 후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배 CIO는 지금까지 카카오에서 큰 M&A를 담당해온 투자 전문가이다. 또한 기업지배구조 및 금융법 전문가인 신진경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를 신규 사내이사로 이사회에 합류시키는 안건도 상정한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 KT 윤경림 대표 선임에 ‘찬성’

글래스루이스, 선임안 찬성 권고
외국인 지분 44% 달해 영향 미칠 듯

외국인 주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이 KT의 윤경림 대표 후보에 대해 선임 ‘찬성’ 의견을 내면서 KT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커졌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 글래스루이스는 오는 31일 열리는 KT 주주총회에서 윤 사장을 차기 대표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 찬성할 것을 권고했다.

글래스루이스는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와 함께 손꼽히는 세계 양대 의결권 자문사로, 각국의 연기금을 포함 1000여 곳의 기관투자자를 고객으로 갖고 있다. 특히, 외국계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

KT 주총에서 윤 대표가 정식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의결을 통과해야 하지만 현재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면 선임 건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KT의 1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여권의 강한 반대에 따라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며, 2대 주주인 현대자동차 그룹도 반대표를 던질 것을 시사했다.

3대 주주인 신한은행도 여권의 반대 분위기에서 찬성표를 행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KT의 지분 10.12%를 소유하고 있으며, 현대차그룹은 총 7.79%, 신한은행은 5.48%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반대 기류 속에서 글래스루이스가 차기 대표 선임 ‘찬성’ 의견을 냄에 따라 기류가 달라질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 KT의 외국인 지분 비중은 44%로 이들이 글래스루이스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주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소액주주들도 윤 대표 찬성 운

동에 나서 1% 이상 지분을 모았지만 아직까지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글래스루이스는 이번 주총에서 사내·사외이사 선임 등 모든 안건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글래스루이스 관계자는 “후보자 명단을 검토한 결과, 주주들이 우려할 만한 실질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주주들이 모든 후보자들 선임에 찬성할 것을 추천한다”고 했다.

KT는 서창석 KT 네트워크부장, 송경민 KT SAT 대표를 사내이사로 내정했으며 사외이사 중 임기가 끝나는 강중구 이사회 의장, 여은정·표현명 이사를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채윤정 기자



전세계 농심 법인에 차세대 시스템 구축

글로벌 통합 경영체계 고도화

SK(株) C&C가 전세계 농심 해외 법인의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SK(株) C&C는 14일 농심 ‘해외법인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1월 SK(株) C&C는 농심의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과 현장 업무 편의성 증대를 위해 진행한 ‘농심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클라우드 기반 SAPS/4HANA ERP 시스템 구축을 포함, 전사 프로세스 재정립 및 영업(모바일 포함)을 비롯한 업무별 인터넷 시스템, SCM(공급망 관리), MDM(마스터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재개발한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SK(株) C&C는 농심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농심 해외법인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서는 S/4HANA ERP 시스템 구축과 함께 본사 차세대 시스템에서 개발된 ▲BW/EIS(경영정보시스템) ▲MDM/PLM(제품기준정보관리)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고, 해외법인 특화 시스템도 재개발해 농심 해외법인 시스템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을 진행한다.

이번 ERP 시스템 구축과 본사 차세대 시스템 확대 적용을 통해 농심의 글로벌 통합 경영 체계를 고도화하고, 사업 현장의 디지털 활용 수준도 크게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포스코 “가족·출산친화제도, 업무몰입에 긍정적 효과”

기업시민·ESG 러닝랩 개최
그룹사 도입 위해 지원 검토

포스코의 사내 가족·출산친화제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를 드러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포스코는 지난 10일 포항 본사에서 사내 가족·출산친화제도를 주제로 기업시민·ESG(환경·사회·지배구조) 러닝랩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포스코는 2022년 2월부터 사회공헌, 탄소중립, 인사노무 등 다양한 분야의 그룹 임직원들이 전문가의 강연을 듣고 대화와 토론으로 경영상의 개선 포인트를 도출하며 통찰력을 키울 수 있는 기업시민·ESG 러닝랩을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그룹 24개 회사의 기업시민·인사·노무분야 임직원들이 모인 이날 행사에서는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포스코가 3월 10일 포항 본사에서 ‘기업시민·ESG러닝랩’을 개최했다. 서울대 조영태 교수가 사내 가족·출산친화제도를 주제로 포스코그룹 기업시민·인사·노무 임직원들에게 강연하고 있다.

조영태 교수가 강연을 펼쳤다. 조 교수는 포스코와 협력사의 가족·출산친화제도와 그간의 성과 등 지난 7개월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포스코의 가족·출산친화제도가 직원의 직무만족도와 업무몰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포스코그룹은 이를 바탕으로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와 같은 제도들이 다른 그룹사에서도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조 교수는 “포스코는 2018년 기업시민을 경영이념으로 선포한 후 기업이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 해결해야 할 대표적인 사회문제 중 하나로 저출산을 선정했다”며 “사내 복리후생 제도가 전

향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사회적 담론 형성과 과정에도 참여하는 등 상당한 노력과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2020년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 도입 등 직원들의 자녀 돌봄 지원 근무형태를 도입했으며, 2022년에는 200만원의 신혼여행지원금과 50만원 상당의 아기 첫만남 선물 제도를 신설하는 등 직원들의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협력사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는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을 개설했으며, 협력사 직원 자녀들이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금도 조성했다.

/양성운 기자 ysw@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2023

골드홈 주택디자인 공모전

GOLDHOME HOUSE DESIGN CONTEST

접수 안내

- * 주제 : 단순함과 실용성이 추구되는 전원주택
- * 응모자격 : 대학 건축설계 전공자, 건축설계종사자, 건축업종사자
- * 응모 작품 수 및 인원 : 1인당 1작품, 공동작품은 3인 이내
- * 접수기간 :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31일
- * 신청방법 : 골드홈 홈페이지 내 공모전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반드시 수기 작성하여 제출
- * 제출내용
 - PDF 파일 : 스케치업 투시도, 각 층 평면도, 정면도, 배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단면도
 - 캐드 파일 일체(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스케치업 파일 일체
 - 참가 신청서, 저작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 수기 작성
 - 위의 파일 압축하여 ghm-4@sfsystem.com으로 송부

시상 안내

- * 대상 1명 : 상장, 상금 500만원
- * 최우수상 1명 : 상장, 상금 200만원
- * 우수상 1명 : 상금 100만원
- * 장려상 4명 : 상금 50만원

심사 안내

- * 심사 기준 : 단순성, 편의성, 경제성, 실용성, 미관성
- * 심사 : 골드홈 실거주 20인, 골드홈 대표 건축가 5인

참가 문의

- * 문의 전화 : 1800-7677
- * 골드홈 주택디자인 공모전 운영위원장 원완연 이사

* 자세한 사항은 골드홈 홈페이지(www.goldhomes.co.kr) 공모전 요강을 참고 바랍니다.

금리 폭등에 주가하락,뱅크런 도미노… 美 국채에 ‘발목’

자산 절반이 ‘미국채’ SVB 파산 이유
SVB 예금규모 1890억 달러 달해
작년 말 모기지 등 국채비중 55%
금리인상에 자금난 기업, 예금인출
통상적인 ‘안전자산’ 기능 놓쳐

지난 주말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은행인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했다. 최우량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국 국채를 자산의 절반이상으로 보유하고 있음에도 파산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미국채 가격하락, 짧은 시간에 이뤄진 대규모 자금인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을 주요인으로 지목했다.

SVB 파산은 2008년 금융위기 때 무너진 워싱턴 뮤추얼 이후 미국에서 역대 2번째의 은행 파산으로 기록됐다. 1983년에 설립된 SVB는 기술 스타트업 분야에 자금을 제공하는 전문은행으로 지난 40년 동안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의 창문에 빗방울 사이로 실리콘밸리은행(SVB)의 간판이 보이는 모습. /뉴시스

벤처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과 저금리, 기술 기업 호황 등으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등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금이 유입됐다. 이들은 이같은 자금을 SVB에 예금하면서 SVB 예금 규모는 2년 만에 3배로 증가한 1890억달러에 달했다. SVB는 이러한 유동성 단기 자금을 미국 국채와 30년

만기 모기지에 투자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SVB는 자산 대비 미국 국채 투자 비중이 55%에 달했다. 이는 미국 내 주요 74개 은행 중 가장 높은 비중이며, 이들 은행 평균 47%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미국 국채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지만 지난해부터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급격한 통화 긴축으로 인해 SVB

는 자금유통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미 연준은 지난해 1월 0%대 수준이었던 기준금리를 올 2월 4.50~4.75%까지 13개월 만에 4.50%포인트 올렸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기술 기업의 주가는 하락했으며, 현금 규모도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예금은 감소했고, SVB가 보유한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유동성 위기에 봉착했다.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하면 손실을 보지 않으나 미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이 대규모 예금을 인출하자 자금 여력이 바닥난 SVB는 채권 매도에 나섰다. 미국채로 구성된 매도 가능 증권 210억달러어치를 팔아치웠고, 이로 인해 18억달러 손실을 봤다. SVB는 채권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22억5000만달러의 신주발행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으나 불안감을 느낀 고객들이 돈을 인출하기 시작하면서 뱅크런 사태가 벌어졌다.

국제금융거래에서 대표적 담보자산으로 활용되는 미국채도 결국 급격한

금리인상에 유동성 저하상황을 맞고 이에 따라 가격이 폭락하면서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안전자산 기능을 놓쳐버리는 보기도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미 국채의 유동성 저하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말 채닛 예런 미 재무장관도 “주시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 여파와 금융시장에 미칠 위험성을 시사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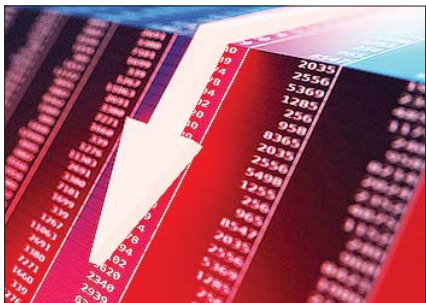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번 SVB 파산의 주요한 원인은 작년 3월부터 지속적인 정책 금리 인상으로 인해 보유 채권 자산에서 대규모 손실이 났고 이는 주가 급락과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면서, 예금인출 사태로 인한 유동성 악화로 연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금리 상승으로 인해 은행의 보유 채권에서 미실현 손실이 확대되면서 발생한 만큼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른 미국 은행권의 취약성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미국 은행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자사주 매입기업 절반이상, 되레 주가 하락

작년 514곳 중 283곳 3개월 뒤 하락
올 26곳 중 17곳 공시이후 주가 ↓

주주가치 제고 위해 소각까지 하고
제도개선으로 자사주 남용 막아야



/유토이미지

최근 기업들이 주주친화 정책을 일한으로 자사주 취득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기대만큼 주가 부양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자사주 취득 공시를 한 514개 기업 중 3개월 뒤 주가가 하락한 기업은 283개로 절반이 넘는 수준에 달했다. 기업들이 주주가치 확대를 목적으로 자사주 취득에 나섰지만, 실질적인 주주가치 제고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자사주를 활용한 주주환원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선 자사주 취득 이후 소각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3일까지 자사주 매입을 공시한 상장사는 63개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7개사의 주가는 공시 이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에서 케이옥션이 공시 이후 지난 13일까지 21.04% 하락했으며 콜마비엔에이치는 19.67%가량 떨어졌다. 또한 신한지주

(-13.24%), KT(-12.37%), 하나금융지주(-10.76%) 등도 약세를 보였다. 통상적으로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은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다. 이는 수급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데다가 유통 주식 수가 감소하면서 일시적인 주가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의 자사주매입이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있다. 자사주 취득이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지기보다는 주주가치 제고와 상반되는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한 용도로 활용되면서 오히려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나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018년 이후 자사주 처분 공시의 처분 목적을 살펴보면 임원 성과보상 지급, 마케팅비 지급, 유동성 확보, 생산시설

투자 및 재무구조 개선, 타법인 주식양수대금 지급 등 주주가치 제고와는 거리가 먼 곳에 활용되거나 처분을 통해 다시 유통시장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사주 매입 규모는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동주의 펀드와 소액주주들이 자사주 매입안을 주총에 상정하라고 요구하는 등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주가 가치를 제대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사주 취득 이후 소각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매입이 소각으로 이어질 때 지배주주의 자사주 남용 가능성을 줄일 수 있으면서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기업들의 자사주소각 여부가 주주환원 정책의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가의 저평가를 탈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관희 기자

상반기 청주테크노폴리스 2500가구 분양

SK하이닉스 등 투자에 ‘교통호재’

주택시장이 주춤한 가운데 상반기에만 2500여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지방도시가 주목된다. 도심형 첨단복합산업단지로 개발이 되는 ‘청주테크노폴리스’가 주인공이다.

청주테크노폴리스는 SK하이닉스 등의 대기업 투자는 물론 교통호재 등 발

전 잠재력 높은 지역으로 기업들은 물론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올 상반기 동안 청주테크노폴리스에서 마지막 3차 용지 분양을 필두로 효성, 신영, 원건설 등이 총 2440가구의 아파트를 선보인다.

청주시를 필두로 신영, 산업은행, 대우건설 등 8개 민간개발사의 공동출자로 개발하는 사업인 ‘청주테크노폴리

스’는 이달에 마지막 3차 용지 분양에 나선다.

이번에 분양되는 3차 사업 용지는 이전 3차 사업의 미공급용지로 상업·근린생활·준주거·노유자·주차시설이다. 이달 중 공고될 예정이며 서류접수 후 입찰 및 계약이 진행된다.

청주테크노폴리스는 지난 2008년 지구지정 후 2013년 본격적으로 조성에 나선 복합도시로 기업체, 상업, 주거, 교육시설이 동시에 조성된다.

/이규성 기자 peace@

코스닥시장위 후보에 민홍기 변호사 추천

KRX, 29일 정기주총서 위원장 선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민홍기(사진)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를 코스닥시장위원회 후보로 추천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코스닥시장위원회 제8차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고 민 변호사를 위원장 후보자로 추천했다. 거래소는 “중소기업과 관련한 풍부한 업무경험이 있고, 코스닥시장 기업심사위원회 위원장(3년), 시장감시위원회 위원(3년) 등을 역임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민 후보자는 1983년 고려대를 졸업한 뒤 동 대학 법과대학원에서 석사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또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기업심사위원회 위원장, 감시위원회 위원, 중소상공인 희망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거래소는 오는 29일 개최되는 한국거래소 제1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민 후보자를 코스닥시장 위원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이영석 기자 ysl@

테슬라 주가 떨어지자, 서학개미 ‘줍줍’

해외주식 Click

예탁결제원, 지난주 7105만 달러 유입
美 리비안 2424만 달러, 순매수 2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파격적인 행보와 반값 전기차 모델 출시가 늦어지면서 이달 들어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은 이를 저점 매수 기회로 삼아 테슬라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주(3월 6일~12일) 서학개미들의 순매수 1위 종목은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로, 총 7105만달러가 유입됐다.

13일(현지시간) 기준 테슬라의 종가는 전일 대비 1.04포인트(0.60%) 오른 174.48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파산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인수에 관심을 드러내면서 주가가 오름세로

마감했다. 단, 테슬라의 주가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파격적인 발언과 2만 5000달러대 반값 전기차 모델 출시가 늦어지면서 이달 들어 15% 넘게 하락했다.

두번째로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제2의 테슬라로 불리는 미국 전기차 업체 리비안이다. 2424만달러를 사들였다.

리비안은 대규모 채권 발행 계획을 발표한 이후 주가가 20% 가까이 폭락했다. 지난 7일(현지시간) 리비안은 13억달러 규모의 녹색 전환사채를 2029년 만기로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리비안의 전환사채 발행에 대해 후발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반도체 수급 문제와 시장 수요 위축에 따른 자금 조달 어려움 등으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학개미는 테슬라 개별 종목뿐 아니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도 사들이며 주가 상승에 베풀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볼보, 연말 EX90 국내 첫 선… 2030년까지 전 모델 전동화

볼보자동차 경영진 첫 방한
미래 비전 담은 콘퍼런스 개최
이윤모 대표

“올 판매목표 20% 올린 1.7만대
1100억 투자 전시장·센터 확대”

볼보자동차 주요 경영진들이 다함께 한국을 찾아 미래 계획을 소개했다. 안전을 중심으로 전동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어가겠다는 포부. 가파른 성장을 이어가는 한국 시장에 대한 애정도 드러났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어 뉴 에라 오브 볼보 카스’라는 이름으로 미디어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볼보 주요 경영진들이 총출동해 볼보차 미래 전략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 최고경영자인 짐 로완을 비롯해 최고경영책임자인 비에른 앤셀 부사장과 최고운영책임자인 하비에르 발레라 부사장 등 핵심 임원 7명이 자리했다. 이윤모 볼보자동차코리아 사장과 함께 주요 파트너사인 티맵 모빌리티 이종호 대표도 함께했다.

특히 볼보 경영진들은 아시아 일정에



볼보자동차 주요 경영진들이 볼보 C40 리차지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고경영책임자 비에른 앤셀, 최고운영책임자 하비에르 발레라, 최고경영자 짐 로완, 볼보자동차코리아 대표 이사 이윤모 /손진영 기자

서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이 빠르게 성장하며 볼보에서 9번째 판매량을 기록한데다가,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등 소비자 요구 사항이 높은 시장으로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이유다.

짐 로완 CEO는 “25주년을 맞은 볼보 자동차코리아가 빠르게 성장하며 세계 9위 시장으로 올라섰다”며 “이를 기념하는 것뿐 아니라 한국 시장을 이해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고 성공 요소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고 말했다.

짐 로완 CEO는 볼보를 100년간 ‘헤

리티지’가 있는 브랜드라고 강조하고, 안전을 회사 출발점이자 핵심 목표로 삼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동화에도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도 스티어링휠을 잡지 않는 게 더 안전할 때어야 도입한다는 입장. EX90에 라이더센서를 전장에 장착하는 이유도 안전을 위해서라고 답했다.

차세대 전동화 모델 볼보 EX90도 올해 말 국내에 처음 소개한다는 방침이다. 출고 시점은 내년으로 예고했다. 이후 매년 전동화 모델을 한대씩 추가하며 2030년에는 모든 모델을 전동화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볼보코리아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이윤모 대표는 올해 판매 목표로 전년 대비 20% 성장한 1만7500대를 설정, 이를 위해 글로벌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짐 로완 CEO는 한 팀으로 돕겠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1100억 원을 투자해 올해 전시장을 32개에서 39개로, 서비스센터를 32개에서 40개로 늘리며 네트워크 확충도 예고했다.

한국 시장에 관심이 높은 이유도 들었다. 자동차가 이제는 달리는 컴퓨터가 됐기 때문. 이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와 반도체가 중요하다고 보고, 티맵모빌리티와의 긴밀한 협력도 이를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터리 부문에서 중국 CATL과 함께 LG에너지솔루션도 중요한 파트너라고 밝혔다.

국내 커넥티드 서비스도 확대한다. 티맵모빌리티는 앞으로 인카 페이먼트와 웨이브 등 OTT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전기차 충전 정보와 결제 등 전동화를 겨냥한 서비스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자율주행을 대비한 고정밀 지도 제작도 이어가고 있다.

볼보는 글로벌에서 성장도 예고했다. 그동안 연간 생산량이 70만대 수준이었지만, 슬로바키아에 연간 25만대 전기차를 생산하는 공장을 새로 오픈하는 등 연간 120만대 이상을 목표로 생산량을 확대하는 중이다.

사회 공헌도 이어간다. 2025년까지 50억원 기부금을 유치하는 등 ‘스웨디시 웨이 투자’를 지속한다는 방침. 푸르메 재단 후원과 ‘헤이 플로깅’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과 함께 추가로 기여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 이윤모 대표는 “볼보자동차에게 한국시장은 가장 역동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상징적인 마켓이며 이에 국내 고객의 만족도와 질적 성장을 높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며, “Volvo EX90 공개 등 성공적인 전동화 전환 계획에 맞춘 리차지 라인업 강화를 비롯해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등 안전과 인간 중심의 가치라는 볼보의 철학을 고객의 삶(Volvo For Life) 속에서 경험하실 수 있도록 중장기적이고 차별화된 성장 전략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방화문 제조’ 中 適 合 業 種 … 대기업 제동

동반위, 동국제강·경동원 등에
신규 진입·확장 자체 ‘권고’
온라인 플랫폼 평가제 마련
‘신동반성장’ 모델 발굴 추진

화재시 추가확산을 막는 약 1조원 규모의 ‘방화문 제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방화문 제조업 진출을 준비하거나 영위하던 동국제강, 경동원, 아주엠씨엠 등 대기업은 향후 3년간 시장에 새로 진입하거나 추가 확장하지 못한다.

동국제강은 방화문 제조를 위한 설비에 약 140억원을 투자하는 등 관련 시장 진출을 준비해왔었다.

경동원은 경동나비엔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경동그룹 소속으로 산업재, 환경재, 건축재, 난방제어 시스템, 홈네트워킹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아주스틸이 대주주인 아주엠씨엠은 방화문 및 관련 소재, 엘리베이터 소재, 건축 내외장재 등을 생산하는 회사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 63컨벤션센터에서 제74차 동반위 본회의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 등 동반성장위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 63컨벤션에서 제74차 동반위 본회의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반위

이를 열고 ‘방화문제조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동반위의 권고 내용엔 ▲대기업 생산 시설 확장자제(대기업 각 사별 4개 라인 초과 증설자제) ▲대기업의 방화문 업체 인수합병(M&A) 자제 ▲대기업의 신규 진입자제 등의 내용이 두루 포함됐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협의회’를 구성해 방화문 제조업의 상생협력 방안을 반기별 1회씩 논의하고, 적합업종 협의사항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상호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권고기간은 올해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업계에 따르면

방화문 제조업 시장 규모는 약 1조원으로 추산된다.

동반위는 이날 회의에서 ▲2023년도 동반위 업무추진 계획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진 요청 추진 현황 ▲2022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하반기 이행점검 결과 등의 안건도 보고했다.

이를 위해 ‘신(新)동반성장’ 모델 발굴과 다양한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간 자율 협약을 추진한다.

온라인 플랫폼 평가제도도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동반성장 모델 구축도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현대차, ‘똑타’로 대중교통 활성화

경기도와 협력해 대부도서 개시

현대자동차가 경기도와 협력해 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에 나선다.

현대차와 경기교통공사는 안산시 대부도 전역에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을 기반으로 다양한 교통수단과 연계가 가능한 통합교통서비스를 시작한

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차는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셔클’을 MaaS(Mobility-as-a-Service)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여 경기교통공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에 시작되는 통합교통서비스는 기존 농·어촌 지역에서만 가능했던 수

요응답형 교통수단 기반의 통합서비스를 경기도 전역에 제공할 수 있게 된 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 내에 총 6개 지역에 추가로 도입될 예정이다.

‘똑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되는 경기도 통합교통서비스는 경기교통공사가 운영한다. 똑타는 현대차가 셔클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한 경기도 맞춤형 모빌리티 플랫폼이다.

/양성운 기자

두산밥캣, 건설장비 ‘전기 로더’ 첫 선

‘콘엑스포 2023’ 전시회에서 2종 공개

두산밥캣이 14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하는 세계 3대 건설장비전시회 ‘콘엑스포 2023’에 참가해 전기 로더 콘셉트 모델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콘엑스포는 3년 주기로 미국에서 열리며, 14~18일 열리는 올해 전시회에는 전 세계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800여 개 건설장비 업체가 참가한다. 완성차 업체와 마찬가지로 건설장비 업계에서도 최근 화두는 전동화, 무인화 기술이다.

두산밥캣은 이번 전시회에 2043㎡ 규모의 부스를 마련하고 첨단 전동화 장비와 무인 디지털 기술을 전시한다. 개막일인 14일에는 엔진 없이 전기로만 구동하는 전기 로더 콘셉트 모델 2종을 처음 선보인다. 전기 로더는 탄소 배출이 없고 소음이 현저히 적은 게 장점이라고 두산밥캣은 설명했다. 두산밥캣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원격 조종 시스템 ‘맥스



두산밥캣이 현지시간 14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건설장비 전시회 ‘콘엑스포 2023’에 참가해 전동화, 무인화를 비롯한 신기술과 신제품을 선보인다.

컨트롤’과 텔레매틱스 시스템을 활용한 ‘머신 IQ’, 인텔리전트 컨트롤 등도 한층 업그레이드 된 기능을 선보인다.

두산밥캣 관계자는 “신제품 출시로 라인업을 확대하고, 지역별 맞춤 전략으로 세계 시장을 적극 공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SK시그넷 ‘완속부터 초급속까지’ 라인업 공개

‘EV트렌드코리아 2023’ 참가

SK시그넷이 국내 최대 규모 전기차 산업 박람회 EV트렌드코리아 2023에 참가해 완속 충전기부터 신제품 V2를 포함한 초급속 충전기까지 충전기 풀 라인업(Full line-up)을 선보인다.

SK시그넷은 전기차 초급속 충전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코엑스 C홀에서 진행되는 EV트렌드코리아 2023에서 충전 기술력

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월 CES 2023에서 큰 주목을 받았던 V2 제품은 단일 포트에서 최대 400kW까지 출력이 가능해 15분만에 20%에서 80%까지 완충이 가능하다. V2제품에 탑재될 파워모듈은 기존 제품 대비 전력효율이 개선되고, 부피를 39% 줄여 충전기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번 전시에는 충전기뿐만 아니라 초급속 충전기의 핵심부품인 파워모듈의 차세대 실제품들도 같이 전시된다.

/하정운 기자 zelkova@

전국민 ‘하루 1kWh 줄이기’ 운동… 대중교통 소득공제 확대

산업부 ‘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
4인가구 기준 월 30kWh 절약
월 전기요금 7530원 절감 가능
초·중등과정 연계 프로그램 개발
대중교통 소득공제 40%→80%

전기·가스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전 국민이 ‘하루 1kWh 줄이기’ 캠페인을 벌인다. 전국 2000만 가구가 매일 1kWh씩 줄이면 매일 2000만kWh를 절감할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 월 30kWh를 절약하면 월 7530원 절감이 가능하다. 대중교통 이용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40%에서 80%로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에너지 효율혁신·절약관계부처와 ‘범부처 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산업부 포함 모든 부처는 전 국민이 참여, 실천 가능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예컨대, ‘하루 1kWh 줄이기’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행동요령을 알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부처 에너지효율혁신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준다. 부처별로 보면, 교육부의 경우 초·중등 교육 과정과 연계해 에너지 절약 관련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영상 문화 매체와 민간의 옥외전광판을 활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철도 등 대중교통을 활용한 에너지 절약 홍보를 추진한다.

정부는 에너지 효율 혁신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경우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 부문 그린 리모델링 의무화 단계를 오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대상을 확대하고,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등 건물 에너지 효율 기준도 점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

원 횟수도 월 44회에서 60회로 늘어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40%에서 80%로 확대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도 활성화한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망도 구축해 효율 혁신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전기차 전비 등급제를 도입해 중·대형차 연비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효율개선 설비와 시스템 보급 확산, 어선 노후기관 교체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 효율 투자 확대를 내수 활성화로 연결시키기 위해 고효율 기기 보급, 투자 관련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전동기와 인버터, 히트펌프 등 핵심설비 교체, 가로등 발광다이오드(LED) 교체 등을 위한 지원,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등도 추진한다.

에너지 취약 부문의 효율도 개선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에 전기·가스 요금 절감 기술을 추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상업

시설 탄소중립 포인트 지급액을 개별 가구 대비 4배로 늘린다.

산업부는 숙박시설과 목욕탕에 주로 설치돼 있는 수열히트펌프 등을 에너지 효율시장 조성사업 지원 대상에 넣기로 했다.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용자에 최소 신청 금액도 폐지해 소상공인의 참여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인해 지난해 요금을 인상했지만 에너지 공기업 재무 상황이 악화됐다”며 “지난해 산업과 수송부문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했지만 상업과 가정 부문 사용량은 증가하는 등 여전히 에너지 효율화 노력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무역수지와 물가,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전 부문에서 근본적인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각 부처가 사명감을 갖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주문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코트라, 인터배터리서 이차전지 수출 지원

배터리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십 개최
일대일 수출 상담회·동향 세미나 마련

KOTRA(코트라)가 국내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수출 공급망 안전화에 나선다. 코트라는 이달 15일부터 사흘간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인터배터리 2023’ 전시회와 연계한 ‘이차전지(배터리)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개최 11회를 맞이한 인터배터리 전시회의 부대행사로 ▲일대일 수출상담회 ▲배터리 해외시장 동향 세미나 ▲잠재 공급선 발굴 상담회로 구성됐다.

인터배터리는 국내 최대 배터리 산업 전시회로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코엑스, 코트라가 공동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462개사 1359 부스가 참여해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배터리 원재료부터 부품·장비·애플리케이션(앱) 등 다양

한 품목의 신제품과 신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장 B홀에서 15일부터 양일간 진행되는 일대일 수출상담회에서는 배터리 셀·부품·검사장비·에너지저장장치(ESS) 등 각 분야 협력 수요가 있는 23개국 62개 바이어가 국내기업과 상담을 진행한다.

인도의 대표 이륜차 제조기업인 히어로 모토콤포와 이탈리아 발전기 제조·운영기업인 프라맥에서는 이륜차용, ESS용 중대형 이차전지 분야 국내기업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배터리 소재 기술과 부품 관련 해외 기업 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에 기여할 계획이다.

15일에 진행되는 이차전지 해외 시장 동향 세미나에서는 국가별 현지 전문가를 초청해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시장 현황과 지역별 비즈니스 협력 기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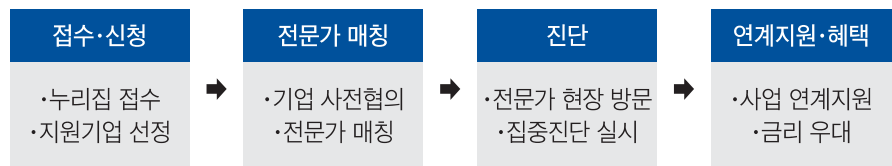
대해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미국·유럽·호주에서는 변화하는 배터리 공급망 생태계와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소개한다. 베트남과 인도에서는 최근 급성장 중인 에너지저장장치 산업 현황과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

17일에는 이차전지 원료 공급선과 만날 기회를 제공한다. 코트라는 호주, 칠레 등 풍부한 광물을 보유한 국가별 잠재 공급선 발굴을 통해 우리 기업이 공급망 다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국가 수출 주력 품목인 배터리 산업이 앞으로도 수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인터배터리 연계 상담회를 시작으로 글로벌 수요에 적기 대응해 시장 선점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중진공 특화진단 추진절차〉



/자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에 저탄소·ESG 특화진단

중진공, 경영혁신진단 등 참여사 모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의 복합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저탄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정부 정책지원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특화진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14일 중진공에 따르면 분야별로 30개사 안팎을 지원하는 특화진단은 기업 경영상의 특정 분야 애로 해결을 위한 것으로 ▲경영혁신진단 ▲탄소중립수준진단 ▲ESG심층진단으로 구성됐다. 해당 분야 전문가가 현장에 직접 방문해 10일간 무료로 실시한다.

경영혁신진단은 기업 문제점을 도출하고 원인 분석과 개선 활동을 통해 애

로사항을 해소하는 문제 해결형이다. 지원대상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현상’에 취약한 매출액 50억원 이상의 중소기업이다. 중진공은 진단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자금 신청조건이 충족되면 실태조사를 통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탄소중립수준진단은 공정·장비별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해 에너지와 탄소배출량 저감 전략을 수립한 후 자금컨설팅 등 맞춤형 정책사업을 연계해 준다. 업력 3년 이상의 에너지 절감에 희망하는 제조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이다. 진단완료 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우수한 기업은 중진공 정책자금과 시중은행 대출 금리 우대 등 금융 인센티브를 받는다.

/김승호 기자 bada@

공항 상주기업서 구직자 100명 채용

인천공항공사, 내일 ‘채용의 날’ 행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 상주기업 채용의 날’ 행사를 통해 맞춤형 채용 기회를 제공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4층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항공협회,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공동으로 해당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공항 상주기업과 구직자를 매칭해 현장에서 면접과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사다.



이선케이) ▲항공사 라운지 미화(케이케이) ▲기내식 세팅(케이엑스퍼트) 분야에서 약 1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청년,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60세 미만의 구직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허정운 기자 zelkova@

산업부

녹색혁신금융사업 접수

풍력·태양광 발전 사업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20년 간 저금리에 200억원 한도로 융자 받을 수 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이날부터 ‘녹색혁신금융사업’(풍력태양광 발전 주민참여자금 융자지원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 저금리 융자는 오는 2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풍력 3MW 또는 태양광 500kW이상 발전소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있거나 주민으로 구성된 5인 이상의 마을기업이다. 발전소 설치로 어업권 등 피해를 입은 주민도 포함된다.

/세종=원승일 기자

R&D 전주기 지원 ‘BIRD 프로그램’ 도입

기보 ‘글로벌 테크팜’ 발굴 목표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융자·출연을 연계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R&D) 전주기를 지원하는 ‘BIRD(Bridge for Innovative R&D)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14일 기보에 따르면 BIRD프로그램은 중기 R&D 성과가 신속하게 사업화로 이어져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단계별 R&D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업화·착수 후 3년 이내 연평균 20% 매출액 성장 및 수출 성장이 기대되는 ‘글로벌 테크팜’ 발굴

을 목표로 한다.

테크팜 기업은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벤처기업으로 연구개발 투자 및 연구개발 인력 비중이 높고, 고위기술 중심의 기술개발 및 기술기반의 매출성고를 발생시키는 기업을 말한다.

기보와 지정원은 민간주도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총 3단계로 나눠 중소벤처기업의 R&D 전주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1단계에서는 R&D과제 발굴·선정과 관련해 기보에서 2억원을 보증하고 2단계 R&D 수행 관련해서는 지정원에서 최대 16억원의 출연금을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사업자 모집!!

27년 전통의 대한홍삼(주)에서
건강사업 성공의 핵심적인 경쟁력을
제공합니다.



- 다양하고 획기적인 제품(기능·이윤)군
- 온라인 판매 마케팅 솔루션 지원
 - 웹카탈로그 제공
 - 고객전용 복지몰 제공
- 맞춤형 창업 및 판매노하우 교육
- 홍보 지원 (TV광고 등)



◎ 취급상품

- 다양한 브랜드 홍삼
- 다양한 브랜드 건강식품
- 다양한 브랜드 건강기기 / 의류 / 화장품

◎ 온라인 [웹카탈로그] 제공

- 매장과 소비자 간 견적 딜 시스템
- 영업사원 관리 및 고객 홍보 시스템

◎ 온라인 [고객전용 복지몰] 제공

- 11만 여 개의 인기 & 특가상품

창업안내

◎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창업 (매장, 영업장, 센터)

◎ 무점포·무자본 창업

◎ 웹카탈로그·복지몰 창업

창업비용

업계 최저 창업비
+ 최대 혜택

상담신청



홈페이지



www.koreahongsam.co.kr

30년 역사 햏터그룹

BH 대한홍삼[주]  브레인TV  (주)햏터라이프 (주)한삼장홍삼

문의 : 02.2163.0411

대한홍삼(주) 최원석
010.2286.5687

경남도, 2.8조 들여 ‘세계 1등 수소특화단지’ 육성

수소생태, 핵심기술사업화 등 37개 수소 전주기 소재·부품·설비 특화 최종 목적지 조선·항공·방산 등 융합

경남도가 정부의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과제를 선도할 수소산업 육성계획을 내놓았다.

류명현 산업통상국장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수소생태계 조성 ▲핵심기술 사업화 등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 4대 전략과제를 담은 수소산업 육성계획(2023~2032년 10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이라는 국정과제와 ‘수소산업 혁신플랫폼 구축 및 수소 핵심기술 사업화’라는 민선8기 도정과제 이행을 위해 도내 수소산업의 실태 진단과 중장기 육성 방향을 마련한 것이다. 박완수 경남도정의 수소산업 육성계획 비전은 ‘글로벌 수소기업 육성으로 제조업 재도약 견인’이다.

그동안 경남테크노파크와 도내의 수소 기업, 대학, 연구소 전문가 등 60여 명의 워킹그룹을 구성해 경남 수소산업 현주소를 진단하고, 주력산업과 연계한 신규 과제로 4대 전략 19개



경남도 류명현 산업통상국장, 수소산업 육성계획 발표

과제 37개 사업을 발굴했다. 발굴한 사업은 ▲(기반시설(인프라)) 산업생태계 확산 ▲(연구·개발(R&D)) 핵심기술 고도화와 사업화 ▲(기업지원) 글로벌 수소기업 육성 ▲(보급) 수소사회 가속화 등으로, 총사업비 규모는 2032년까지 10년간 약 2조8000억 원이다. 경남은 전국 2548개 수소 기업 중 두 번째로 많은 234개사(생산 37, 저장·운송 92, 활용 92, 서비스 13)가 밀집해 있으나, 수소클러스터, 규제자유특구, 수소인증센터가 없다.

이에 경남도는 기반시설 구축을 통한 수소산업 생태계 확장을 추진한다.

우선, 밀양에 총사업비 410억원을 투입해 수소환경 소재부품 기원지원센터를 설립한다. 또, 창원을 중심으

로 김해·밀양과 연계하는 수소특화단지에 총사업비 1조5500억 원을 조성해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나아가 한국수소기술원을 유치할 예정이다.

경남에서는 그동안 수소생산기지, 액화수소플랜트, 수소충전소 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연구 개발 사업이 진행돼 왔으나, 핵심부품 수입 등에 따라 부품 국산화를 제고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청정수소 생산, 액화수소의 저장·운송·충전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해 선박, 항공, 방산 등 주력산업과 연계한 연구·개발(R&D) 추진을 위한 7623억 원 규모의 19개 사업을 발굴했다.

우리나라 수소산업은 도입기를 지나 성장 초기 단계이고, 기업 지원도 아직

은 걸음마 단계로 전문인력 양성과 수소기업 홍보 등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경남도는 수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경남테크노파크는 지난 2022년부터 정부의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기관으로 지정됐고, 올해부터 수소분야를 전담하는 수소팀을 신설하는 등 글로벌 수소기업을 지원할 준비를 마쳤다.

아울러 ‘경남수소얼라이언스’를 조직해 매월 11일 (예비)수소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기술을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내외 수소전시회 참가 지원, 전문인력 양성, 수소전문기업 지정 확대 등 수소기업의 공정기술을 지원해 글로벌 수소기업 육성한다. 현재 경남에서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는 14개소이고, 수소차는 2019년 396대에서 2400대로 증가했으나, 동부권에 집중돼 있다. 올해부터 서부권에 4개 수소충전소를 신규 구축하는 등 오는 2026년까지 수소충전소 26개소를 구축하고, 수소트럭·광역버스 등 상용차를 포함해 6600대 보급을 목표로 한다.

/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진주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

진주시는 길고양이 관련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시행하는 중성화 사업 규모는 3000마리이며 1인당 5마리까지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시민은 관내 10개 지정 동물병원에서 공용 포획틀을 대여해 현장에서 포획(사진 촬영)한 뒤 지정 동물병원으로 인계, 수술 후 처치 기간을 거쳐 원래 장소로 다시 방사하면 된다.

/진주(경남)=김영찬 기자 metrobusan3@

문경시

생활폐기물 오전6시 이후 수거

경북 문경시는 환경미화원들의 생활폐기물 수거시간을 오전 4~5시에서 오전 6시 이후로 조정했다.

이번 조치로 근무시간이 오전 6시 이후로 변경됨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새벽시간 수거작업으로 청소 후 남은 쓰레기 방지 등의 문제도 작업시간 변경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거작업이 늦춰진 만큼 출근시간, 상점 개점시간 이후에도 근처 배출장소의 생활폐기물들이 여전히 수거 중이라는 부정적 요소도 있다.

/문경(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

상주시

청년 행복 뉴딜 프로젝트 펼쳐

상주시가 지난달 도에서 공모한 ‘2023년 청년행복 뉴딜프로젝트’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청년 행복 뉴딜 프로젝트’ 사업은 대학, 기업, 문화공간 등 청년 활동이 많은 지역 내 공간을 거점으로 하여 청년 활동 인프라를 구축하고 청년 친화적 문화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상주시는 2020년 동 사업을 신청하여 청년 소통 및 활동 공간인 청년센터 ‘들락날락’을 조성한 바 있다.

시는 올해 ‘청년 프리마켓 및 청년 주간행사’와 연계하여 청년의 수요에 맞춘 문화강연, 지역장인에게 배우는 원데이클래스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상주(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무안군

오룡공원에서 ‘마켓 올래’ 개최

전남 무안군이 오는 25일 무안군 일로읍 오룡공원에서 청년셀러 플리마켓 ‘마켓 올래(來)’를 개최한다.

무안군소상공인연합회는 판매자 100여팀을 모집해 오룡공원 놀이터에서부터 참나무숲 공원 입구까지 400미터의 산책로에 음식, 생활, 패션, 미용, 체험 부스 등을 설치한다.

무안로컬푸드사회적협동조합과 무안플랫폼사업단에서도 참여하여 군 향토 농특산물로 지역 먹거리 존을 운영한다. 또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을 위해 비눗방울 쇼,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등 홍보 행사도 진행한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섬 지역’ 관광개발 힘쓴다

전남도, 96억 투입 관광지 조성
여수, 완도, 신안 등 10개 사업 추진

전라남도가 역사·문화자원과 자연생태가 우수한 섬 지역 우수 관광자원을 활용해 특색있는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는 ‘섬 지역 관광자원개발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우수한 지역 관광지역을 개발해 체험 및 테마 관광지로 조성하는 ‘섬 지역 관광자원개발사업’에 지난해보다 16억 증액된 96억 원을 들여 목포, 여수, 완도, 신안, 강진에 10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목포 고하도 해안동굴 탐방로 조성은 올해 착수하는 사업이다. 해상케이블카,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목화정원, 고하도 전망대 등 관광 기반시설과 연계해 일제 강점기 조성된 해안가

절벽 인공 해안동굴 관람 시설을 구축한다. 자연경관 감상과 근대역사 교육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어 다양한 연령층의 관광객이 만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자연 친화적 출렁다리를 설치해 비렁길 해안 절경 체험을 위한 여수 금오도 비렁길 활성화 사업과 장도 앞바다의 수려한 경관을 감상하고 갯벌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여수 장도 해양예술숲은 올해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섬 지역 독립운동가의 활동을 기리고 민족 역사 의식을 고취할 완도 소안항일운동 섬테마공원, 섬 지역 문화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한 신안 세계 해대상테마공원도 연내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강진에서 열린 ‘제70회 3·1절 기념 전국투어 도로사이클대회’ 참가 선수들이 대회 코스를 질주하고 있다.

/강진군

동계훈련 메카… 명실상부 ‘강진’

8개 종목 3200명 선수단 방문

강진군이 겨울철 전지훈련 메카로서의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14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 초까지 8개 종목 3,200여 명의 선수단이 강진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1월 초부터 중등부 축구 16팀, 배드민턴 초·중·고등부 33팀, 탁구 80팀, 배구 8팀, 야구 8팀, 볼링 15팀, 테니스 10팀, 사이클 50팀 등 8개 종목 총 2,700여 명의 선수단이 강진을 찾았다. 연인원으로 따지면 약 3만여 명에

달한다. 경제효과는 25억 5,000만 원에 이른다. 전남발전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지훈련팀 선수 1인당 하루 8만 5,000원의 직·간접 경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에는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도 열렸다. 자전거 라이더들의 향연인 ‘제70회 3·1절 기념 전국투어 도로사이클대회’ 및 ‘2023년 마스터즈 사이클 강진투어’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강진군 일원에서 펼쳐졌다.

/강진(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부산 학부모 72% ‘학업성취도 평가 필요’

교육공동체의 의견 조사 결과

부산광역시교육청학력개발원은 지난 2월 치른 학업성취도평가 진행 및 보정에 대한 교육 공동체의 의견 조사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설문 조사에는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3003명과 교원 2324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학부모의 72.6%, 교원의 51.4%가 학생들의 정확한 학력 진단과 그에 따른 맞춤형 학습 지도를 위한 학업성취도평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학력 진단 뒤 보정을 위한 부산

학력향상지원시스템(BASS)의 도입에 대해서도 학부모의 72.8%, 교원의 47.5%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 밖에도 학생의 평가 참여 의지 강화 등을 통한 평가의 신뢰성 확보, 실질적인 교사의 업무 지원 및 역량 강화, 교육 공동체의 인식 전환 등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부산학력향상지원시스템과 단위 학교 학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등으로 학생들 학력을 보정해 학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광주 광산구,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선정

‘3대 권리’ 증진 프로그램 운영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국립특수교육원 주관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에 신규 지정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장애 유형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지역 중심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모 선정에 따라 광산구는 ‘권리중심 장애인 평생

학습 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된다. 배우고 알 권리, 일할 권리, 누릴 권리 등 장애인의 3대 권리 증진을 뒷받침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장애유형별 적합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 권리를 찾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4개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

/광주=김종식 기자 skjong1@

하늘길 정상화 수준… 움추렸던 여행업계, 다시 ‘함박웃음’

항공기 운항편수 70%까지 회복
대한항공, 객실승무원 복직 예고
이달 韓中 노선 200회 이상 편성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신규입찰에
국내 빅4, 中 CDFG도 뛰어들어

장기화하는 경기불황에도 ‘여행’을 둘러싼 업계만은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대한항공이 오는 5월 객실승무원 전원 복직을 예고하면서 여행 플랫폼 업계는 물론, 면세점 업계도 본격적인 엔데믹(풍토화)을 맞아 면세사업권을 두고 격돌하고 있다.

14일 <메트로 경제> 취재 결과, 지난 달 전체 운항편수는 코로나 이전 대비 70% 수준까지 회복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 전반에 화색이 돌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항공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항공 운항편수는 4만486편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7855편 대비 45.3% 늘었다. 코로나19 사태 전인



여객들이 1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서 탑승수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2019년 2월 5만5466편의 72.99%까지 회복했다. 특히 국제선 운항편수는 2022년 9670편에서 지난달 2만 5851편까지 늘며 167.3% 증가해 2019년 국제선 운항의 63% 수준까지 회복했다. 여객수 또한 713만 7309명에 이르며 2019년(989만 6855명)의 70%까지 올랐다.

최대 방한국가였던 한중노선도 복구된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중국 정부와 한중 노선 운항을 코로나 이전 수준

까지 확대하는 데 합의하면서 2월 말 기준 주 62회에 불과하던 중국 운항편수는 이달 말부터 200회 이상까지 늘 예정이다.

운항편수와 여객 수가 빠른 속도로 회복세에 들면서 관련 업계도 활력이 돌고 있다.

줄지어 영업을 중단한 면세점의 경우 신규 입찰 경쟁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신규 입찰에 국내

면세업계 빅4인 롯데면세점,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 신라면세점이 모두 참여했으며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도 입찰에 뛰어들었다.

14일 일반 사업권 PT에는 각사 CEO 들까지 총출동했다.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 유신열 신세계디에프 대표, 이주실 현대백화점면세점 대표가 참석해 PT를 진행했다. 신라면세점만 CEO가 참석하지 않고 면세점사업(TR)부문장을 맡고 있는 김태호 부사장이 나왔다.

여행업계는 보복성 여행소비로 상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코로나19 전에는 해외 여행을 위해 2~3달 전부터 준비하던 게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예약 후 7일 내 숙소를 체크인 하는 비율도 크게 늘었다. 여기어때에 따르면 해외여행객 10명 중 2.4명(24.0%)은 1주일 내 체크인하는 숙소를 예약했다. 당일 체크인하는 숙소 예약도 4.3%에 달해, 여행 준비 기간이 짧은 고객의 비중이 높았다. 평균 체크인까지 기간은 33일 수준이지만, 여행객 간 편차가 크고 즉

흥 여행을 가는 여행객 비율이 높았다.

인터파크는 코로나19 사태 중 인기를 끌었던 골프여행 상품을 대거 선보여 지난 1, 2월 재미를 봤다. 인터파크의 1~2월 골프패키지 상품 송출객은 2019년 동일기간 대비 1240%나 증가했다. 인터파크는 지난해 6월 골프탐을 신설하고 상품 발굴에 심혈을 기울였다. 향후 자체 골프여행 상품을 내놓는 것뿐만 아니라 골프전문업체와 제휴를 통해 더욱 다양한 선택지를 고객들이 누릴 수 있게 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카자흐스탄관광청과 협력해 알마티 지역 골프 패키지 등 이색 골프여행 상품도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리오픈 당시 특수를 예상한 업계가 많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사태가 닥치며 오히려 타격을 입은 곳이 많았다”며 “여행과 관련된 산업군은 전반적으로 최근 활력이 도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마트·익스프레스·온라인 등 전 채널 성장”

이제훈 홈플러스 사장, 경영전략 보고
모든점포 성장실현 등 6대전략 발표

홈플러스가 12년 만에 매출 상승세로 전환했다.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점포 리뉴얼과 온라인 사업 확장의 성과라는 분석이다. 올해는 손익 개선을 위해 고객중심의 사업 질서 정리와 상품 발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13일 서울 등촌동 홈플러스 본사에서 2023년 경영전략 보고회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 이제훈 홈플러스 사장은 2023년 경영 키워드로 ‘고객 경험’과 ‘지속 성장’을 제시하고 성장세를 이어갈 전략을 발표했다.

보고회에서 이제훈 사장은 “마트, 익스프레스, 몰, 온라인에 이르기까지 전 채널에서 성장을 이루어냈다”며 “올해 고객 관점의 온·오프라인 쇼핑 환경을 구현하고 이익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할 것”이라고 비전을 알렸다.

올해 6대 전략은 ▲모든 점포의 성장 실현 ▲대표 카테고리 상품의 혁신적 개발 ▲적극적인 온라인 사업 확장 ▲



이제훈 홈플러스 사장이 13일 서울 등촌동 홈플러스 본사에서 진행된 ‘2023년 경영전략 보고’에서 올해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홈플러스

환경 개선 및 미래형 콘셉트 매장 구현 ▲홈플러스 올라인(All-Line) 통합 마케팅 추진 ▲활기차고 긍정적인 문화 구축 등으로 정했다.

경영전략 보고에서 매출 상승세에 주효했던 메가푸드마켓에 대한 계획도 공유했다. 이달 말 시화점 리뉴얼을 시작으로 오프라인 강화 전략을 지속하며 상품 경쟁력과 온·오프라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메가푸드마켓은 먹거리에 집중해 공간과 동선을 혁신한 홈플러스의 차세대 점포 모델이다. 기존 점포를 리뉴얼하는 방식으로 열어 지난해 2월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점을 첫 리뉴얼 점포로 공개했다. 지난달 23일 복수원점까지 열며 17개점이 메가푸드마켓으로 전환됐으며, 모든 점포가 재개점 시점을 기준으로 평균 20% 이상 신장했고 본사가 위치한 플래그십 스토어 강서점과 가장 최근에 리뉴얼한 야탑점 등은 100% 누적 매출신장률을 보였다.

리브랜딩을 통한 타깃 재설정과 온라인 사업 역량 강화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스물다섯살 신선한 생각’을 캐치프레이즈로 블랙핑크 로제를 모델로 한 광고를 공개했다. 그 결과 브랜드 이미지 쇄신에 성공해 2030세대 고객을 크게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광고가 공개된 시점부터 1년 간 홈플러스 온라인의 연령별 회원수는 20~39세 회원수가 전년 동기 대비 53% 신장하면서 전체 회원 중 20~39세 비중은 37%까지 늘었다. 지난해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수도 800만 명을 돌파했다.

/김서현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CJ, AI가 고객성향 맞춤 광고문구 뽑는다

AI 카피라이터 개발·업무 도입

CJ가 고객 성향에 최적화된 마케팅 카피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성향맞춤 AI 카피라이터’를 개발, 실제 업무에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CJ AI센터에서 자체 개발한 엔진 기반의 ‘성향맞춤 AI 카피라이터’는 기본적인 프로모션 정보만 입력하면 마케팅 캠페인에서 사용할 카피 문구를 자동으로 생성, 고객의 성향에 최적화된 문구를 생성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상적·감정적 성향의 고객에 대해선 대화체와 비유적 표현 방식의 문구를, 현실적·이성적 성향의 고객에 대해선 제품의 효과와 계량화된 정보를 부각한 문구를 제안하는 식이다. 마케터들은 이를 다양하게 조합 또는 변형해 엽 푸시, 이메일 제목 등에 활용할 수 있다.

CJ는 이를 통해 관련 업무시간을 줄여 보다 창의적인 일에 활용하는 등 효

율적인 업무 몰입이 가능해지고, 실질적인 성과까지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J AI센터 관계자는 “개발 단계에서 5만여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실제 마케팅 프로모션에 유입되는 반응률을 테스트한 결과, 성향맞춤 AI 카피라이터를 활용했을 때 고객 반응이 평균 3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CJ AI센터는 푸드·뷰티·패션·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빅데이터 학습과 추가적인 고객 성향 분석,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한 자동 학습을 통해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치훈 CJ CDO(최고디지털책임자) 겸 AI센터장은 “CJ는 쇼핑·물류·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사업영역에서 수많은 경험과 취향이 반영된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보다 스마트한 AI 활용 모델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컬리, 메이크업 카테고리 매출 4배 ‘썰렁’

매출액은 전년 대비 294% 올라

컬리는 14일 뷰티컬리의 메이크업 카테고리 매출이 올 들어 약 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명품 뷰티의 매출이 큰 폭으로 늘며 성장세를 이끌었다.

뷰티컬리가 올해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의 메이크업 카테고리 매출 분석 결과,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94% 급증했다. 같은 기간 동안 구매 고객 수도 2.4배(145%) 늘어났다.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인 상품군은 명품 뷰티 메이크업 라인이었다. 같은 기간 11배(1018%) 증가하며 강세였다.

최고 인기는 립 제품군으로, 이달 입점한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아워글래



컬리는 올해 들어 메이크업 카테고리 매출이 약 4배 올랐다고 밝혔다. /컬리

스’ 글로시밤과 립 오일 제품은 높은 주문량에 오픈 기념으로 준비한 증정품이 이틀만에 소진됐다. ‘랑콤’ 압출쉬 루즈 립스틱 역시 인기였다. 뷰티컬리의 보라색 전용 박스 덕에 “선물하기에 좋다”는 후기도 많았다.

/김서현 기자

KGC인삼공사 “인삼사업 인적분할 안전 가처분 기각 환영”



“기업·주주가치 제고에 악영향 우려”

KGC인삼공사는 법원이 ‘인삼사업 부문 인적분할의 건’을 KT&G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달라는 안다자산을 용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날 대전지방법원은 “인삼사업 부문 인적분할의 건은 법률에 위반되거나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이를 의안으로 상정하는 것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관련 내용을 기각했다.

이에 KGC인삼공사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인삼공사 인적분할 안건은 법리상 주주제안으로 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상대방이 무리하게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인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생

각한다”며 “제시한 분리상장 계획안 역시 KGC인삼공사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안다자산을 운용을 비롯한 사모펀드 측은 인삼공사의 인적분할 상장을 주장해왔으며, 인삼사업 관련 전문성이 없는 인물들을 KGC인삼공사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 후보로 거론한 바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6조 반려동물 시장 잡아라… 유통업계 사업·투자 가속화

(2027년)

반려동물 양육 638만 가구
시장규모 집계 3조4000억
GS리테일
‘어바웃펫 매출 255% 성장’
하림
‘제품 론칭 4년만에 흑자전환’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유통업계도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펼치거나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가구는 2020년 기준 양육가구 638만 가구, 인구 수 1448만명에 이른다. 시장 규모는 농촌경제연구원 집계 결과 2015년 1조9000억원에서 2020년 기준 3조4000억원에 이른다. 2027년에는 6조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집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면서 반려동물 관련 제품도 다양화되는 추세다.

14일 메트로경제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하림은 2017년부터 일찌감치 가축용 사료 사업을 넘어 하림펫푸드를 론칭, 반려동물 사료를 생산하고 있다.

하림펫푸드는 출범 초기 매출액 약 2억원, 영업손실 34억원을 기록했지만,



GS리테일은 자회사이자 펫 전문몰인 어바웃펫에 대한 투자, 콘텐츠 사업자와의 제휴 등을 통해 커머스 and 콘텐츠가 결합한 반려동물 플랫폼을 빠르게 키워간다는 계획이다. /GS리테일

2021년에는 매출액 285억9243만원, 영업이익 약 5억8229만원을 기록, 제품 론칭 4년만에 흑자전환했다.

동원F&B는 반려묘용 제품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2014년 펫푸드 브랜드 ‘뉴트리플랜’을 론칭하고 100% 휴먼그레이드 사료 제품을 차례로 선보여 왔다. 특히 국내 최대 수산기업 동원산업이 직접 잡은 신선한 참치로 만들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동원F&B는 반려동물 시장이 발달한 일본에 1991년부터 30년간 6억개 이상의 펫푸드를 수출해온 만큼 검증된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수준의 휴먼그레이드 원료를 사용한 제품들이 국내 사료 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과언이 아니다”라며 “최근에는 일반적 사료가 아닌, 수제 습식 사료나 이에 버금가는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다.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료 시장의 경우 이미 인지도가 높은 해외 브랜드가 점유율을 대거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점유율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며 “단기간에 수익을 낸다기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고,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풀무원의 100% 자회사인 풀무원건강

생활도펫푸드브랜드 ‘아미오(amio)’를 운영하고 있다. 풀무원의 ‘바른먹거리’ 이미지를 입힌 건강한 반려동물 먹거리를 만든다는 게 회사의 방침이다.

풀무원건강생활에 따르면 아미오의 매출은 연평균 30% 가량 성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매출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약 2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회사는 고객과의 접점을 넓혀 아미오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반려동물 관련 스타트업과 사업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기업은 GS리테일이다.

GS리테일은 반려동물 시장이 2027년까지 10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보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해왔으며, 반려동물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밸류체인을 구축한다는 게 세부 목표다. 이는 보다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반려동물의 생애 주기에 맞춘 토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GS리테일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펫프렌즈에 총 315억원을 투자해 왔으며 현재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앞서 GS리테일은 2017년 반려동물 돌보미 중개업체 도그

메이트, 2018년 반려동물 수제 간식 업체 펫픽, 헬스 전문업체 바렘시스템 등에 투자했다. 여기에 장례업체인 그램 21도 밸류체인인 한 축으로 나섰다. 지난해에는 동물 병원 전문 MSO(병원경영지원회사) 분야에도 신규 투자했다. 동물 병원 경영지원 브랜드 ‘벳아너스’를 운영하는 ㈜아이엠디에 투자해 포트폴리오 외연을 더욱 확장시켰다.

GS리테일은 온라인 사업 1위체인 펫프렌즈와 프리미엄 온라인 반려동물 어바웃펫을 통해 반려동물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사업자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GS리테일의 자회사이자 펫 전문몰인 어바웃펫에 대한 투자와, 콘텐츠 사업자와의 제휴 등을 통해 커머스와 콘텐츠가 결합한 반려동물 플랫폼을 빠르게 키워간다는 계획이다.

최근 어바웃펫은 프리미엄 반려동물 상품 매출을 론칭 초기보다 255% 성장시켰다. 현재 어바웃펫은 커머스와 콘텐츠가 결합한 반려동물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계획도 진행 중에 있다. 이와함께 적극적인 투자도 유치하며 자체 체력을 길러가고 있다. 지난해 5월 어바웃펫은 네이버로부터 100억원을 유치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

유니세프에 2억달러 규모 필수백신 공급

LG화학

전세계 영유아 8000만명분
소아마비백신 수주량 1위 기록

LG화학이 전세계 아동 공중보건 문제 해결을 위한 소아마비백신 등 영유아 필수백신을 대량 공급한다.

LG화학은 14일 소아마비백신 ‘유폴리오’, 5가(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B형간염, 뇌수막염) 혼합백신 ‘유폴타’로 유니세프(UNICEF) 입찰에 참여해 총 2억달러 규모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소아마비백신 ‘유폴리오’



를 2년간 1억달러, 5가 혼합백신 ‘유폴타’를 5년간 1억달러 규모로 공급하는 계약이다. 이번 계약을 바탕으로 LG화학은 전세계 약 8000만명 영유아의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 물량을 공급하게 된다. 특히 LG화학은 이번 소아

마비백신 입찰에서 전체 조달 물량의 30% 이상을 확보, 수주량 1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메이저 공급사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다.

LG화학은 소아마비백신 공급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설비 투자를 통해 연간 6000만 회(도즈) 이상 분량의 ‘유폴리오’ 생산능력을 구축했다.

LG화학은 1996년 B형간염백신 ‘유박스’를 시작으로 2016년 ‘유폴타’, 2020년 ‘유폴리오’의 세계보건기구(WHO) 사전적격성평가(PQ) 승인을 받았다. /이세경 기자 seilee@

대웅제약, 칠레서 ‘펙수클루’ 품목허가 획득

중남미 시장 진출 공략 본격화

대웅제약의 국산 34호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펙수클루’가 중남미 시장 장악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웅제약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가 지난달 20일 칠레 공중보건청(ISP) 산하 국립의약품청(ANAMED)으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품목허가로 대웅제약은 에콰도르(1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중남미에서의 품목허가 획득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특히 중남미 두 국가에서 품목허가신청서(NDA) 제출 10개월만에 신속히 허가를 받아내 해외 진출에서 대웅제약의 완성도 높은 준비가 다시 한번 증명됐다.

칠레는 중남미 4위 시장규모를 갖춘 데다 아르헨티나 등 남아메리카 주요국



의 허가 참조국으로, 향후 펙수클루의 중남미 시장 진출 확대는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11월 필리핀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개국에서 펙수클루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다. 대웅제약은 올해 말까지 품목허가 제출국을 20개국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 대웅제약은 총 11개국에 NDA 제출을 완료한 상황이다. 허가 획득에 성공한 3개국 외에 멕시코, 브라질,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태국, 페루가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페르노리카코리아

전세계 200병 한정
‘로얄샬루트’ 위스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프레스티지 위스키 ‘로얄샬루트’와 영국의 아이코닉한 패션 디자이너 리처드 퀸의 협업으로 탄생한 대담하고 매혹적인 하이패션 스타일의 한정판 에디션 ‘로얄샬루트 하우스 오브 퀸 바이 리처드 퀸’을 출시한다.

이번 패키지 디자인은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나타내는 장미 꽃잎과 현대적이면서도 혁신적인 엷지를 가시 무늬로 표현해 냈다.

국내에서 21병 한정으로 선보이는 ‘로얄샬루트 하우스 오브 퀸 바이 리처드 퀸’은 주요 백화점 및 주류 전문 매장, 그리고 최고급 호텔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신원선 기자

하이트진로

전통방식 레드와인 ‘지공다스 라 까브’ 출시

프랑스 남부 론 지방와이너리 제품

하이트진로가 고품질 와인을 출시하며 와인 포트폴리오를 강화한다.

하이트진로는 프랑스 남부 론 지방의 대표적 레드와인 제조 와이너리 ‘지공다스 라 까브(Gigondas La Cave)’의 와인 2종을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1956년에 설립된 ‘지공다스 라 까브’는 현재 73개의 와인메이커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이다. 포도 수확은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하며, 정기적으로 각 와인메이커들의 농장을 방문하여 와이너리 특성에 부합하면서도 품질을 최적으로 할 수 있는 포도 재배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결정한다.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현대기



술을 적용해 품질이 일정한 전통 와인을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풍부한하면서도 강한 느낌의 레드와인을 주로 생산한다.

‘지공다스 셀러브레이션’은 ‘지공다스’ 아펠라씨옹(AOC)의 탄생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고급 한정판 와인이다. 최상의 포도만으로 생산량을 제한하며, 풍성한 향과 부드러운 질감이 특징이다. /신원선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셀트리온 지뉴브와 항체 신약 공동연구개발

‘샤인마우스’ 활용 최대 2종

셀트리온은 국내 혁신신약 개발 회사인 지뉴브와 항체 발굴 및 신약 개발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양사는 선행되는 지뉴브의 항체 발굴 용역이 마무리되면 지뉴브가 보유한 항체 발굴 플랫폼 ‘샤인마우스’를 활용해 최대 2종의 항체의 발굴 및 연구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본격 개시할 예정이다.

이 공동연구 결과에 따라 셀트리온이 라이선스-인 옵션을 행사할 경우, 항체 건당 개발 마일스톤은 최대 330억원, 상업화 이후 누적 매출 10조 달성 시 판매 마일스톤은 최대 9000억원까지 지뉴브에 지급하게 된다.

최근 자연면역과정으로 생성된 항체의 이점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은 마우스를 통해 다양한 항체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지뉴브와의 협업으로 고부가가치 신약 개발 가능성을 타진한다는 전략이다. /이세경 기자



2023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불확실성의 시대,

재테크·세테크



기조강연
글로벌 경제와 한국경제 전망

김영익 서강대 경영대학원 교수



강연. 1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강연. 2
부동산 규제완화와
세테크 전략

호지영 우리은행 세무사



강연. 3
은퇴 준비와 재테크 전략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2023. 3. 22 (수)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철저한 방역 하에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하는 만큼, 사전 등록은 필수입니다

- 축 사 :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 개 회 사 :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이사
- 기조강연 : 김영익 서강대 경영대학원교수
- 강 사 :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 호지영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 세무사 /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사전등록 :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 문 의 : 100세 플러스 포럼 사무국(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상기 일정 및 후원, 강연 등의 내용은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대건설, 메타버스 건설업 활용·연계 방안 모색

현대건설이 메타버스 산업 고도화 지원과 건설업 연계 활용 방안을 위한 산학협력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지난 13일 창립75주년 기념 NFT 판매 수익금 전액을 서강대학교 메타버스전문대학원에 기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최재범 현대건설 개발사업부 전무(왼쪽)와 현대원 서강대학교 메타버스전문대학원 원장이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대건설



KT스카이라이프, '스마트 돌봄' 가정 안테나 지원

KT스카이라이프가 남원시 '스마트 돌봄' 가정에 '사랑의 안테나'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스카이라이프는 남원시청에서 13일 기부 전달식을 갖고 치매환자 가정에 '사랑의 안테나' 20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철호 KT스카이라이프 대외협력실장(왼쪽)과 최경식 남원시장이 사랑의안테나 기부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전북교육청, 미래인재 육성 맞손

LG헬로비전과 전북교육청이 학생중심 미래교육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13일 전북교육청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서 (오른쪽부터) 송구영 LG헬로비전 대표이사과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LG헬로비전



대동-메가존클라우드, 미래농업 플랫폼 구축 협력

대동그룹의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대동애그테크가 클라우드 기업 메가존클라우드와 AI 농기계·로봇 및 스마트팜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등의 미래농업 플랫폼 구축을 위해 전략적 업무협약을 맺었다. 대동애그테크 권기재 대표(왼쪽)가 메가존클라우드 AWS 사업 총괄 황인철 대표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동

청호나이스

‘마음존중 ESG 캠페인’ 전개

청호나이스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일상 속 ESG 실천을 위한 임직원 ‘마음존중 ESG 캠페인’을 펼친다.

이번 캠페인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참여하자는 취지에서 기획했다. 실천 인증 시 건당 1000원의 기부금으로 적립하며 일정금액이 모이면 어려운 이웃의 주거환경 개선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

현대차그룹-대한상의-효성그룹, ‘다함께 나눔 프로젝트’ 행사

정의선·최태원·조현준, 소방 공무원 지원 팔 걷어

현대차그룹, 첫 프로젝트 핵심 역할
‘재난 현장 소방관 회복버스’ 기증

현대자동차그룹이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효성그룹과 함께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 공무원들의 복지와 안전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현대차그룹과 대한상의, 효성그룹은 14일 울산북부소방서에서 ‘제1차 다함께 나눔 프로젝트’ 행사를 개최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소방 공무원들의 휴식과 회복을 위한 ‘재난현장 소방관 회복버스’를 소방청에 기증, 효성그룹은 순직 소방 공무원 유자녀 장학금 및 현직 소방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 등 소방 공무원 복지증진을 위한 기부금을 나눴다.

‘다함께 나눔 프로젝트’ 행사에는 소방청 남화영 청장 직무대리, 울산소방본부 이재순 본부장, 울산북부소방서 소속 소방 공무원 등 소방청



14일 울산북부소방서에서 열린 신기업가정신협의회 ‘제1차 다함께 나눔 프로젝트’ 행사에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왼쪽부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이 소방 공무원 복지·안전 지원을 위한 ‘재난현장 소방관 회복버스’와 기부금 전달식을 갖은 뒤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관계자들과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 울산광역시 안호대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상의 ‘신기업가정신협의회(Entrepreneurship Round Table)’가 주관하는 ‘다함께 나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현대차그룹이 첫번째 나눔 프로젝트의 핵심 역할을 맡았다. 이는 평소 소방관들의 헌신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정의선 회장이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현대차그룹은 소방 공무원들이 화재 진압, 재난 구호 활동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차량이 전국에 10대에 불과한 점에 착안해 현대차그룹 버스를 ‘재난현장 소방관 회복버스’로 개조해 소방청에 전달하기로 했다. 지원되는 재난현장 소방관 회복버스는 무공해 수소전기버스1대를 비롯 프리미엄 버스8대다. 특수

장착 비용까지 포함 총 52억 원 규모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날 소방 공무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된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시는 소방관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우리 모두가 ‘안전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관 여러분의 의견을 담아, 현장 맞춤형으로 제작되는 재난현장 회복버스가 소방관 여러분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우리 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분들이 존경받고 대우받아야 한다”며 “소방관들의 복지를 증진시킬 부분을 찾아 지원하고 기업 입장에서 우리 사회 문제를 진지하게 함께 해결하는 데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123층 수직 마라톤… 롯데월드타워, 내달 22일 ‘스카이런’ 개최

20일까지 선착순 참가 접수
상위 등수 롯데 상품권 등 시상

롯데월드타워 정상을 정복하는 행사가 이어진다.

롯데월드타워는 4월 22일 ‘2023 스카이런’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스카이런은 롯데월드타워 123층 전망대까지 오르는 수직마라톤대회다. 계단 2917개를 오르며 도전정신과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공유하고 재활치료 환아에 희망을 전달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매년 첫날 신청을 마감하며 누적 6000여명과 함께했다.



올해에는 워드코로나로 ‘다시 힘차게, 새롭게’라는 메시지를 내걸었다. 경쟁 부문 1200명과 비경쟁 부문

2000명을 모집하며 역대 대면 행사 중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된다.

참가 접수는 3월 20일 오전 11시부터 롯데온 스카이런 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4만원이다. 참가자에는 푸마 공식 티셔츠와 배 번호 등이 담긴 레이스

키트를 제공한다. 완주하는 경우 메달과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음료 간식과 음료를 담은 완주키트와 완주 인증서를 더한다. 기록이 우수한 3등까지 남녀 참가자에는 롯데 상품권 123만원권과 시그니엘서울스테이 2인 식사권, 푸마 운동용품 세트 등을 시상한다.

롯데월드타워는 3개층마다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피난안전구역 등 7개 구역에 응급구조사를 대기시키는 등 안전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참가비는 롯데의료재단 보바스 어린이의원에 전액 기부한다. 2021

년부터 보행치료사업을 위한 기부를 이어오고 있으며, 기부금도 치료비 지원과 환경 개선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재원 롯데물산 마케팅팀장은 “노(NO)마스크 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이번 행사는 답답했던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모두 다 함께 훌쩍하게 뛰어보자는 뜻을 담아 역대 최대 규모로 기획했다”며,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힘차게 도전하는 이번 대회가 모든 참가자와 재활치료 환아들에게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임직원 고민 함께”… 현대車, ‘마음챙김 클래스’ 운영

오은영 아카데미 협업
매달 다른 주제로 맞춤 수업

현대자동차가 임직원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현대차는 육아 멘토링 전문 업체인 오은영 아카데미와 함께 직원들을 대상으로 마음챙김 그룹 클래스를 3월부터 매달 다른 주제로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마음챙김 그룹 클래스는 현대차



지난해 6월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에서 열린 ‘마음 상담 토크 콘서트’ 현장

가 지난해 6월 오은영 정신의학과 박사를 초청해 ‘마음 상담 토크 콘서트

트: 요즘, 우리’를 진행한 이후 직원들의 고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기 위해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현대차 양재사에서 개설되며 오은영 아카데미와 협업해 자녀 양육을 중심으로 직무 스트레스 관리와 직장 내 갈등 완화 등의 주제에 대해 맞춤형 수업을 매달 개발해 운영한다.

/양성운 기자

현대삼호重 전 사원 조직활성화 교육 실시

구성원간 신뢰·소통 강화

HD현대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이 ‘전 사원 조직활성화 교육’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도모한다.

현대삼호중공업은 14일부터 오는 10월까지 신인 자은도 씨원리조트에서 총 39차수에 걸쳐 전 사원 39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조직활성화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완화됨에 따라 조직 구성원 상호 간 신뢰 강화 및 소통과 화합의 조직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성운 기자

인사

◆고용노동부 <4급 승진> △청년고용기획과 유현경 △산업보건기준과 황규석 △운영지원과 김승희 △부산청 광역 근로감독과장 최태식

부음

▲주목연씨 별세, 박진표(선샤인필름 대표감독)·박진오씨 모친상=13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호, 발인 16일 오전 9시 30분. 02-3410-3151

▲양용담씨 별세, 영찬씨(목원산업)·영권씨(머니투데이 사회부장)·수양씨(양천우체국) 부친상, 문형철씨(세아CM 차장) 장인상, 이연경씨·정지현씨(강북구청 팀장) 시부상, 양녹주씨(한화아쿠아플레넷) 조부상=14일 전남 목포 봉황 장례식장 201호, 발인 16일. 061-242-2222

▲정봉진씨 별세, 정수현(전 GC녹십자 부사장·건국대학교 특임교수)씨 부친상=12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2호(조문은 15일부터), 발인 16일 오전 10시 국립 현충원. 031-787-1500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달려드는 개 때리면 형사처벌 되나요



김정준 변호사의

생활 법률

2022년 6월, 6세 아이에게 개가 달려들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개를 때린 아이 아빠 A씨가 견주로부터 동물보호법위반 등으로 고소를 당한 일이 있었다. 아이가 개의 공격으로 다치거나 큰 화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개를 때렸다는 이유로 A씨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까?

반려견은 동물이지만 법적 지위는 물건이다. ‘형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보고 있고, 제366조에서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따라서 고의로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다면 재물손괴, 동물보호법위반 등 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동물을 다치게 했다고 곧바

로 범죄가 성립해 처벌받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가 긴급피난, 정당방위 등의 요건을 갖추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그러한 위난을 피할 다른 수단이 있거나 적절한 방법이 있었다면 과잉피난 행위가 돼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해 동물보호법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고가 일어난 정황 등을 고려해 사람을 공격하는 개를 다치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개로부터 공격을 받는 사람을 구할 다른 수단이 없는 유일한 수단이었다면 긴급피난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만약 그렇지 않고도 개의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과잉피난 행위가 돼 재물

손괴, 동물보호법위반 등 죄가 성립하고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긴급피난이 성립되는 정황이란 무엇인가?

첫째,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었는가’이다. 피해자가 노약자인지, 사고 발생 시간대가 밤이었는지 등이 일응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개가 사나운 것으로 알려진 맹견에 해당한다거나 몸집이 크거나 공격 태세가 위협적이었느냐이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공격이 있었고 개를 해해야만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는지 여부다. 따라서 난폭한 개가 달려들었다 해도 공격이 끝난 상황에서 해하는 경우 보복으로 평가되고 긴급피난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위 사건에서 경찰은 CCTV를 확인한 후 A씨의 행위를 긴급피난으로 보고 사건을 그대로 종결했다.

개물림 사고에 견주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 견주는 형법상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민법 제759조에 따라 동물 점유자로 반려견이 사람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부동산 연착륙과 야당의 역할



김지수협

김대환
(건설부동산부)

윤석열정부가 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분위기다.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감으로 매수심리는 회복되고 집값 하락폭은 축소되는 등 극심한 침체를 겪었던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3월 첫째 주(6일 기준)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1% 하락했다. 하락폭이 전주(-0.24%)보다 0.03% 포인트(p) 축소되면서 4주 연속 낙폭이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6.3에서 67.4로 1.1p 상승했다.

매수심리가 회복되면서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량은 늘어났다. 서울부동산정보

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지난 1월과 2월 각각 1402건, 2073건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1000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6월(1066건) 이후 1000건을 넘지 못했던 매매량은 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회복하는 모양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집값이 너무 빨리 하락해 금융안정에 영향을 줄까 걱정했지만, 올해 1~2월 집값이 떨어지는 속도가 둔화하고 있어 금융안정 측면에서 연착륙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시장에선 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실효성을 뒷받침할 관련 법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미분양과

거래 절벽 해소를 위해 내놓은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안’은 현재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 처리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재건축 대못 규제도 불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관련 개정 법안의 경우 6개월째 국회 문턱만 맴돌고 있다. 여야가 대치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재조환 완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규제 완화 개정안이 수개월이 지나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명분마저 저버리는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정쟁 속에서 법안 처리가 계속 늦어지면 실수요자들의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야·대정부 투쟁을 이어가는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이제라도 관련 법안 통과에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kdh@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3월 15일 (음 2월 24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사람은 백인백색(百人百色) 천인천색(千人千色)으로 개성이 다르다. 48년생 원숭이띠와 다름주의. 60년생 결과는 미래에 있기 마련. 72년생 큰 바다에 나가봐야 풍파의 거침을 알게 된다. 84년생 백옥은 진흙 속에서도 빛난다.



37년생 집안 정돈이 되면 마음은 힘을 얻는다. 49년생 시시비비에서 내 잘못도 생각. 61년생 어려움을 겪어봐야 남의 어려움도 알게 된다. 73년생 뒤는 높 위에는 높 있으니 분발. 85년생 소나무는 눈사리를 이겨내 절개를 자랑.



38년생 지혜가 있으니 두려울 게 없다. 50년생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마라. 62년생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 74년생 내일의 주인공이 되려면 평소 긍정적으로. 86년생 반려견을 키우려면 피해주지 말고 결맞게 애티켓도 지켜야.



39년생 근면함으로 부족함을 극복. 51년생 소고기라도 먹지 않는 사람이 있기 마련. 63년생 힘들고 고단한 하루를 보내면 보답이 온다. 75년생 농친 고기를 안타까워 말고 주변을 정리. 87년생 예수는 항상 네 이웃을 사랑하라 말했다.



40년생 재물이란 돈구름과 같다고 하지만 그래도 절실히 필요. 52년생 하늘의 조화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듯이 인간의 길흉화복도 마찬가지. 64년생 투기와 투자를 제대로 구분하라. 76년생 마음은 별처럼. 88년생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41년생 비가 오다가 소나기가 몰려오는 하루. 53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65년생 한발 앞서려다 두 걸음 뒤처지게 되니 주의. 77년생 역마의 운이 있으니 여행도 추천. 89년생 할 수 있다는 말을 마음으로 되뇌여라.



42년생 변화가 와도 미미한 수준. 54년생 일이 잘 안되면 원인을 내게서 찾으라. 66년생 환영을 받으니 기쁨이 넘치는 하루. 78년생 벌을 두려워하면 꿀을 얻을 수 없다. 90년생 미인박명(美人薄命)이니 외도를 인위적인 수술은 신중하게.



43년생 지상낙원이 따로 없이 행복. 55년생 금전 문제 아니면 속상할 일이 생긴다. 67년생 썰물이 되면 바다의 바닥이 드러나 볼수 있다. 79년생 구슬수가 있으니 새로운 만남을 주의해야. 91년생 첫 손가락에 배가 부르지는 않는다.



44년생 기회가 주어지니 현명한 판단이 필요. 56년생 마른 우물을 찾고 기뻐하는 형국. 68년생 부모님의 건강과 안부를 챙기면 좋은 일이 있다. 80년생 남의 부러움을 사는 날이나 음주주의. 92년생 실로 알 수가 없는 것이 사람마음.



45년생 한쪽말만 듣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도록. 57년생 청소를 하면 기운도 따라 정돈이 되니 일이 풀린다. 69년생 가난에 시달리면 마음도 위축되니 재테크공부. 81년생 자신감이 충만. 93년생 욕심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인데.



46년생 인생살이 근심을 어찌 다 알 수가 있겠는가. 58년생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니 즐겁게. 70년생 돈이 많아도 지혜를 모아 지켜나키가 내 돈. 82년생 자나 깨나 불조심하는 날. 94년생 재주가 한 가지만 있어도 원만한 생활을.



47년생 가족에게 공평하게. 59년생 하루의 계획은 새벽부터. 71년생 세상에는 남의 잘못을 말하기 좋아하는 부류가 있다. 83년생 비가 든 구름을 걸로 봐서 어찌 알겠는가. 95년생 젊음이 있으니 향기를 내뿜으려 하지 않아도 될 듯.



김상회의四季

토정비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토정비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이다. 조선명종 때 토정 이지함이 지었다는 일종의 도참서이나 그의 저서는 토정집이며 토정비결은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다. 여하튼 주역의 음양설을 기초하여 일 년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데 활용된 점복서이다. 생일을 숫자로 따져 해당되는 괘를 읽어내는 방법인데 괘를 뽑는 방법도 간단해 쉽게 괘를 찾아볼 수 있다. 조선선조 때의 학자이자 의약과 복서(卜筮) 천문 지리 음양에 능통했던 그는 너그러운 성격에 산수를 베풀며 방랑생활을 즐기는 방외인이었다고 전해진다. 그가 한때 서경덕의 문인으로 지낸 때가 있었다. 서경덕은 당대의 존경받는 학자로 성리학 대가이면서 주역과 천문에 능했다. 이때에 음양을 알아 천기를 읽고 해석하는 류의 깊은 이해를 나누어 후일에 비결이라는 대한민국의 국민점복서를 탄생시킨 배경이 되었으리라 본다. 생애의 대부분을 흉담음막집에서 지내 토정이라는 호가 붙은 그의 토정비결은 연초가 되면 집안의 할아버지가 토정비결서를 펼쳐놓고 식구별로 일년 운을 봐주던 기억도 난다.

그는 매우 탁월한 인재였으나 처가의 장인이 역모에 연루되어 토정 역시 양반에서 천민으로 전락했고 몇 년 후 억울한 고변에 의한 것이었음이 밝혀져 복권되기는 했으나 이후 정치권의 벼슬생활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실감했을 것이다. 말년쯤 복권이 되면서 포천(抱川)과 아산(牙山)현감을 지내긴 했으나 벼슬의 허망함을 아는지라 전국의 산천을 두루 다니며 명당과 길지를 점지하고 살았다. 그런 후에 그는 자손들이 역모나 큰일에 연루되지 않으면서 후손을 편안하게 도모할 수 있는 길지를 찾아 지금의 분당지역을 자손들이 안주하는 집성촌으로 만드는 기틀을 유언으로 남겼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14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1251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 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8				4
				8		1
5			4	6		2
	2			4		9
	9		6			8
	1		3	8		2
	8		2			
	6				5	

		7		2		
5			7		4	
						7
3	4					
6	8					7 3
						9 6
		1				
			6		3	
			8		6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파를
사우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5 / 10,000원

정답

7	8	5	1	9	4	3	2
1	3	4	7	6	2	8	9
2	6	9	5	8	3	1	4
3	5	8	2	7	4	6	1
4	7	1	9	6	5	3	8
5	3	6	1	5	9	2	7
6	2	8	3	4	7	1	9
7	4	9	1	5	8	2	6
8	1	9	4	6	7	2	5
9	8	5	3	2	1	7	4

2	7	9	2	8	1	5	9	6
9	1	8	5	6	9	7	2	1
6	2	5	1	7	9	1	9	8
9	6	2	8	5	7	9	1	1
5	2	7	1	9	6	2	8	9
1	8	9	2	1	6	7	5	5
7	9	2	6	1	8	9	5	2
2	5	1	7	9	1	8	6	9
8	9	6	9	2	5	2	1	7

과히도의 월드컵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서울시교육청, 특성화고 '서울형 마이스터고' 전환 추진

마이스터고 강점 특성화고 접목
첨단 분야 고숙련 실무인재 양성
조희연 교육감 “직업교육 체제 혁신”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첨단 분야 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고숙련 실무인재를 양성하고자 특성화고에 '서울형 마이스터고'를 도입한다.

'서울형 마이스터고'란 높은 수준의 직업교육 역량을 가진 마이스터고의 강점을 특성화고에 접목해 더 질 높은 직업교육을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특히 마이스터고 수준의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프로젝트 수업 및 디지털 기반 교육 ▲산·학·관 협력 체제 등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해 학생역량을 강화하고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올해부터 2024년도까지 선도학교 20개교를 시범운영하고, 내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와 '서울형 마이스터고' 비교			
	마이스터고		서울형 마이스터고
학교유형	특수목적고(산업수요 맞춤형고)		특성화고
학교수	4교		64교(예정)
관리감독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운영	■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 프로젝트 수업 ■ 디지털기반 교육 ■ 산·관·학 협력체제 ■ 영마이스터 인증제 운영	적용 학생역량 강화	■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 프로젝트 수업 ■ 디지털기반 교육 ■ 산·관·학 협력체제 ■ 영마이스터 인증제 운영
학생진로	취업 고숙련 실무인재 양성	다양화 학생맞춤 진로지원 강화	취업 고숙련 실무인재 양성 진학 전공분야 계속 교육
운영평가	■ 5년마다 지정·운영 평가 ■ 연차별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	적용 직업교육 질 관리 강화	■ 5년마다 지정·운영 평가 ■ 연차별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
행·재정지원	■ 마이스터고 운영비 지원으로 학교특색사업 자율운영 ■ 목적사업 제한적 참여	적용 학교운영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 서울형 마이스터고 운영비 지원으로 학교특색사업 자율운영 ■ 목적사업 정비로 학교업무경감

자료/서울시교육청

지정·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 2025년 64개 특성화고를 서울형 마이스터고로 전환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서울형 마이스터고' 선도학교 간 정기적 협의체 운영, 컨설팅 지원단 운

영 등을 지원한다.

서울 직업계고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계획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반도체 거점학교'도 운영된다. 관련 학과들을 개편해 거점학교 중심의 학교 간 공동교

육과정을 진행한다.

2023학년도에 우선적으로 2개교를 지정 운영하며, 2025학년도 까지 매년 2개교씩 총 6개교를 선정한다. 거점학교에는 운영비, 산업수요 맞춤형 학교 개편, 반도체 분야 학교 밖 교육기관 발굴, 산업계·교육계 전문가 인력풀 구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이밖에도 반도체 마이스터고 1개교를 설립을 추진 중이며,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 한국폴리텍대 반도체 융합캠퍼스, 나노종합기술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견패키징 업체 등과 반도체 분야 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해 나가고 있다.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블록체인 DID 기반 스마트 학생증 모바일 앱을 도입한다. 블록체인 DID(Decentralize Identity, 분산신원인증) 기술은 4차산업 신기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신원 증명 기술이다. 학생들은 스마트 학생증 앱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신

원정보와 이력 등의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기존 학교 유휴부지를 활용해 AI융합 진로직업교육원(가칭) 설립이 추진된다. 교육원에서는 단위학교의 진로교육과 신산업·신기술 교육 지원과 미래 첨단기술 분야 교원 현장 전문성 향상 연수를 위해 4차 산업 신기술 교육장 등을 구축하고, 초·중·고 학생 대상 진로직업교육 및 직업 체험활동 등 프로그램은 물론 교원·학부모, 시민들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급격한 사회의 변화 속에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 가능한 서울 직업교육으로의 체제 혁신을 이루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의지”라며 “이를 통해 우리 서울 학생들을 빠르게 변화해 가는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로 키우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서울시, 충무로 도로공간 재편... 보행로 1.8배

이달 중 착공해 연말 완공 목표
띠녹지 조성... 붓꽃 등 초화류 식재

비좁고 불편했던 충무로의 보행로가 1.8배 넓어진다.

서울시는 충무로역 교차로에서 종로 3가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충무로(돈화문로) 도로공간 재편사업'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이달 중 착공해 연말 완공한다는 목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는 ▲보도폭 확대 ▲띠녹지 조성 ▲횡단보도 신설·개선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조업 주차공간 정비를 추진한다.

먼저 시는 기존 0.7~1.5m였던 보도폭을 2~2.8m로 넓힌다. 노후 보도 포장을 교체하고 포장재를 통일해 도시미관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또 시는 충무로 보행로에 띠녹지를



충무로 조감도.

/서울시

가꾸기로 했다. 시는 국수나무, 노랑꽃창포, 붓꽃 등 다채로운 초화류를 식재해 지역 일대에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충무로~돈화문로 전구간의 횡단보도를 보행동선을 고려해 정비한다. 시는 이면도로 접속부 단절구간에 횡단보도를 신설한다. 특히 신설 횡단보도 13곳 중 차량통행이 많은

6곳에는 보도와 높이가 같은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높일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띠녹지 높이를 조정하고 횡단보도 턱 낮춤 등을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보행이 가능한 유니버설디자인을 보행로에 적용할 방침이다.

아크릴, 인쇄, 기계, 공구, 조명 등 상가 지역 특성에 맞게 조업 주차면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노상주차장을 정비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충무로가 지역 상권과 관광지를 잇는 명품 보행거리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도심 보행공간 확대를 통해 시민 편의 증진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오세훈 서울시장 “한강 수상버스 도입 검토”

유럽출장 중 곤돌라 설치 등 입장 밝히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강에 곤돌라 설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후보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1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템스강에 위치한 'IFS 클라우드' 케이틀 탑승장을 방문해 “곤돌라는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관광 및 교통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는 대상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9일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한강변 주요 여가문화 거점 공간을 공중으로 연결하는 곤돌라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시는 곤돌라 설치 후보지로 독섬, 잠실, 서울숲, 상암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시민이 즐겨

찾는 공간이지만 교통 접근성과 연결성이 부족해 곤돌라 같은 신 교통수단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한강의 주요 거점을 잇는 교통 기능을 갖춘 곤돌라가 강변 일대를 색다르게 조망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곤돌라 후보지에 대한 민간투자 제안을 받아 기술적 타당성, 교통·환경적 영향성, 수요 등을 검토한 뒤 최종 대상지를 선정, 한강의 새 랜드마크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오후 런던 템스강을 오가는 리버버스(수상버스)를 체험한 오 시장은 한강에 수상버스 도입도 고려해 보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서울에 돌아가 (수상버스 도입)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며 “1년에 몇 번 홍수가 날 때를 제외하면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인천시 창업 활성화 2537억 투입

인천광역시시는 올해 총사업비 2537억 원을 투입해 '2023년 창업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5대 전략 15개 세부과제, 65개 사업을 추진한다.

실행계획에 따르면, 우선 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된 K-바이오 랩허브를 중심으로 인천형 창업인프라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또 성장단계별 맞춤형 창업지원 및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인천=김대의 기자

경기도, '건설안전관리 전산시스템' 도입

ISP 완료, 2단계 사업 본격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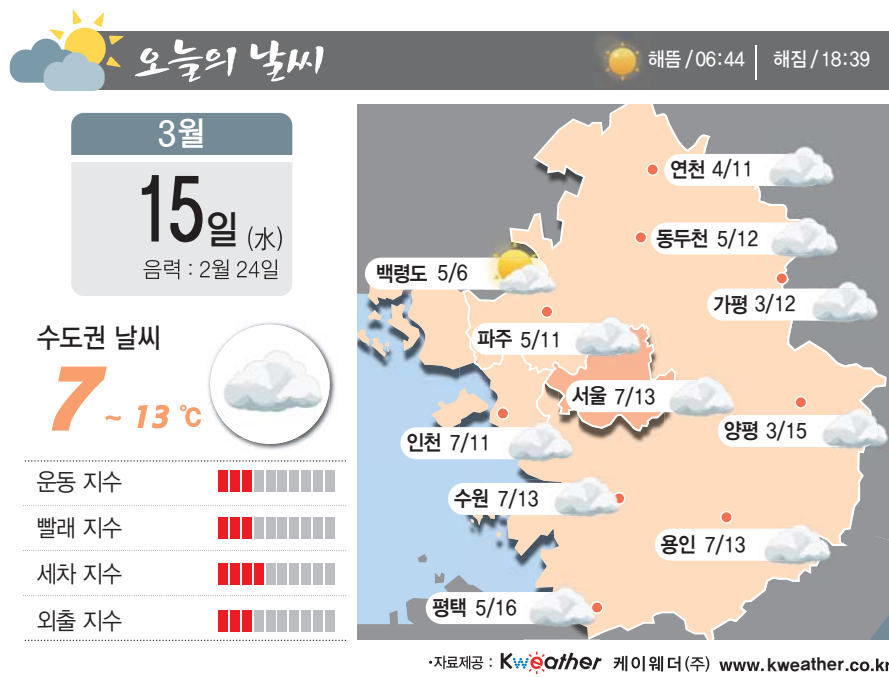
경기도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건설사업장 등 산업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부각됨에 따라 건설공사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건설안전관리 전산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먼저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건설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사업'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2단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건설안전관리 시스템은 도와 시군의 인허가 담당부서, 건설·안전 부서에서 추적관리가 어려운 50억 미만 소규모 공사 건설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건설안전 실태 실시간 확인·관리 ▲안전에 관한 미흡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전달·공유 조치 ▲사고 발생·현장점검 이력 관리 등을 전산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ICC, 첫 영상 발부... '우크라 침공' 러 전범 재판 개시
▲ 뉴욕증시 SVB 영향... 은행주 폭락 속 혼조세 마감



▲ 폭스바겐, 캐나다에 배터리 공장 설립... IRA 보조금 겨냥
▲ 中 무기 수출 감소... "전쟁 대비 국내 비축 강화 신호"

/사진 뉴시스



▲ 이탈리아·영국·일본, 16일 도쿄서 국방장관 회담
▲ '한 달 살기 명소' 치앙마이, 사실 대기 오염 최악

/사진 뉴시스



[라이프]
하늘길 정상화 수준
여행업계
다시 '함박웃음'
L1



Life

[라이프]
유통업계
반려동물 관련
사업·투자 가속화
L2



백내장수술 3만례... 환자 삶의 질 개선 30년 ‘개안천사’

〈開眼〉



이세경의
속깊은 인터뷰

김 학 철

연수김안과 대표원장

병원 전면을 둘러싼 통창으로 송도 센트럴파크의 전경이 한 눈에 들어왔다. 밝고 쾌적한 공기가 병원 특유의 무거운 긴장감을 한 번에 몰아냈다.

인천 연수구 포스코타워송도 7층 새롭게 문을 연 ‘연수김안과 노안백내장센터’를 찾았다. 연수김안과는 지난해 병원을 한 층 확장해 노안·백내장 환자들을 위한 전용 공간을 마련했다. 맞춤형 진료실과 검사실을 운영해 대기 시간을 줄이고, 차별화된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해 중장년층 환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세를 탄 곳이다.

연수김안과는 지난 30년 가까이 경인 지역에서 노안·백내장 수술 전문 병원으로 터를 잡아왔다. 1995년 작은 동네 안과로 시작해 1500명이 넘는 대형 병원으로 성장할 때까지 오직 환자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가치를 두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자신을 ‘인천 토박이’라고 밝힌 김학철 연수김안과 대표원장은 “환자 한분 한분을 대할 때 실제 내 가족이라면 어떤 진료를 권할지, 어떻게 수술할지를 늘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제까지 백내장 수술 2만6000건을 시행했고, 그 가운데 노안·백내장 수술만 8500례 이상을 집도한 베테랑 의사다.

- 노안·백내장에 주력하게 된 이유가 있다.

“스마트폰 등 전자 기기의 사용 증가와 환경 변화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백내장 발병이 빨라지는 추세다. 사회활동이 왕성한 40~50대에 발병될 경우 불편함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노안·백내장 수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앞으로도 경쟁력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했다.”

- 노안백내장센터의 차별점은.

“맞춤형 진료를 위한 전용공간이기 때문에 수술 전 검사 시간을 최소화하고, 최첨단 의료기기는 물론 실력있는 의료진을 확보해 의료 서비스 질을 높였다. 특히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수술실을 오픈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수술실은 투명한 유리벽으로 되어 있으며, 모든 과정을 수술 대기실 모니터를 통해 라이브로 볼 수 있다.”

김 원장은 2007년 1월 경인지역에서 처음 노안·백내장 수술을 시작했다. 미국 알콘사가 개발한 ‘레스토’라는 새로운 렌즈(인공수정체)가 처음 등장했던 시기였다. 이 렌즈를 삽입하면 노안과 백내장을 한꺼번에 교정할 수 있어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후 렌즈는 끝없이 발전을 거듭하며 현재 50여가지의 렌즈가 출시된 상태다.

- 노안·백내장 수술 시기는 언제가 좋은가.

“수정체의 혼탁 정도를 분류해 ‘어느 수준 이상이면 수술을 해야 한다’와 같이 정해놓은 기준은 없다. 나이에 상관없이 스스로가 노안이나 백내장 등으로 일상에 불편을 느끼고, 안경으로도 교정이 잘 되지 않을 때 병원을 찾아 정밀 진단을 받고 수술을 고려해볼 수 있다. 너무 오래 방치할 경우 수술이 어렵고 만족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노안이 시작될 때부터 정기 검진을 통해 백내장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은 뭐냐.

“백내장으로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해 백내장과 노안을 동시에 교정하는 수술이다.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은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하는데, 이럴 경우 초점이 원거리나 근거리에 고정돼 안경이나 돋보기를 보조 수단으로 착용해야 한다. 반면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면 먼 거리, 중간거리, 가까운 거리까지 모두 잘 볼 수 있고, 한 번 삽입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해 평생 시력 교정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렌즈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종류가 다양하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이 때문에 각



김학철 연수김안과의원 대표원장이 지난달 21일 인천 연수구 연수김안과의원에서 본지와 인터뷰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30년간 2만6000건 수술 집도한 백내장 베테랑
빨라진 발병시기, 노안 시작 때 백내장 여부 확인해야
보험금 기준 까다로워져... 과잉진료 병원에 책임 있어
정교함 요하는 까다로운 수술, 의사 숙련도 중요해
보답하는 마음으로 지역사회에 다양한 후원활동도

각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자신의 눈 상태와 일상, 직업적인 특성을 고려해 렌즈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에는 단초점과 2중 초점 렌즈를 사용했는데 2중 초점 렌즈는 근거리 원거리를 모두 잡았지만 중간거리는 보이지 않는 불편함이 있다. 독일 칼자이스에서 개발한 3중초점 인공수정체는 중간 거리에서도 상이 맺히도록 업그레이드됐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안과는 현재 ‘빙하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4월 부터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수술 환자가 폭 줄긴 탓이다. 백내장 수술이 급증하면서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지자 보상금 지급이 보류된 영향이 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수술 건수 1위를 차지했다. 연 평균 증가율은 7.9%에 달한다.

- 왜 이런 상황이 온건가.

“구분별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진 게 사실이다. 일부 병원들이 불법적으로 실손

보험이 있는 환자들을 유인하고 불필요한 수술을 유도해 과잉진료를 했기 때문이다. 특히 경험이 부족한 의사들이 수술을 진행하면서 수술 이후 문제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 타격은 있다.

“지난해 4월 이후 수술 건수가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다초점 렌즈 삽입술은 한쪽 눈에만 400만~500만원이 드는 고가의 수술이고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다. 이 때문에 실손 보험의 도움없이 대부분 수술을 결정하기 어렵다.”

- 어떻게 해결돼야 한다고 보나.

“과잉 진료를 주도하고 문제를 만든 병원에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일부 병원의 잘못으로 그동안 정직하게 수술을 해 온 많은 병원들과, 노안·백내장 수술이 꼭 필요한 환자들 피해를 입을까 우려된다.”

김 원장은 지난 2014년 백내장 수술 1만례 달성에 이어 5년만인 2019년 백내장 수술 2만례를 달성했다. 김 원장은 노안·백내장 수술 병원을 선택할 때 집

도의의 숙련도와 병원을 거쳐간 환자들의 만족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병원 선택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백내장 수술은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지만 상당히 까다로운 수술이다. 의사들은 대부분 1만례를 고비로 보는데, 1만례는 한달에 100건의 수술을 10년 해야 쌓을 수 있는 경험치다. 노안·백내장 수술은 일반 백내장 수술보다 훨씬 까다롭다. 최대한 작게 절개해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집도의 높이는 숙련도와 정교한 술기가 필요하다. 노하우를 체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경험이 적은 의사들에게 수술을 받다 실패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 연수김안과가 노안·백내장 수술로 유명해진 이유는 뭐라고 보나.

“인천과 같은 지역사회는 광고가 아닌 입소문으로 움직인다. 먼저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은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그 소문이 나면서 센터를 찾는 환자 숫자가 빠르게 늘었다. 수술에 실패하지 않고 환자의 만족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가 그 병원이 가진 실력이고 성패를 좌우하는 키포인트다.”

김 원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후원과 나눔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의료를 시작으로 사회 약자의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스포츠활동 지원과 인식개선을 위한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2012년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전국대회 의료봉사를 계기로, 인천시지부의 수석부회장을 맡아 인천스페셜올림픽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5000만원 이상 후원해 왔다.

- 최근 모교인 중앙대광명병원에 발전기금 1억원을 후원했는데.

“모교 발전을 위한 마음도 있지만, 지역사회 의료 발전을 위한다는 마음이 더 컸다. 중앙대광명병원이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병원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 나눔 활동에 열심인 이유는.

“병원을 운영하며 지역 환자들에 많은 것을 받은 만큼 되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답하는 마음으로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자는 ‘밝은 세상 만들기’ 캠페인을 개원 초부터 진행한 것도 그 때문이다. 도움의 크고 작음을 생각하기보다 이사회를 위해 ‘지금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고민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펼쳐갈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중국서 드라마 ‘더 글로리’ 파트2 흥
쳐보기 기승
▲문체부, 전국 272개 공립박물관 평가
인증...140곳 우수 /사진 뉴시스

▲문화재청, 민속 문화 이해 시민강좌
운영
▲이대호 시청률 잡았다...SBS, WBC
한국·중국전도 1위



▲‘레스터전 환상골’ 손흥민, 런던풋볼
어워드 ‘올해의 골’
▲한국도로공사, 페퍼저축은행 잡고 봄
배구 진출 티켓 확보하나 /사진 뉴시스